

Start-up Trend Report 2024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Contents

Part.1

조사 개요

Part.2

조사 결과 요약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Part.1

조사 개요

조사 설계

조사 명칭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 인식 및 현실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됨
조사 대상	1) 창업자 250명 대상 :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2) 투자자 200명 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 (리멤버의 투자자 Pool 활용) 3) 스타트업 재직자 200명 대상 :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200명 대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200명 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총 1050명
조사 기간	2024년 9월 13일 ~ 9월 27일

Part.2

조사 결과 요약

스타트업 창업자의 생각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0.5점을 주었으며, 64.8%가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많이 어려웠던 2023년 대비해서는 나아졌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 역시 경기 불황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전년 대비 어려움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현재 대비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점수는 54.6점으로 높지 않습니다.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 필요성을 느끼며, 특히 세제혜택/세금감면이 가장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 산정/인정(밸류에이션)과 제품 서비스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장 전략, 자금 확보, 투자 관련 조언을 희망합니다.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매출 다각화 전략, 정부지원사업 추진, 기업 비용 절감, 흑자 사업 집중 등을 고려하며, 2022년 이후 정부지원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네이버를, 가장 선호하는 AC/VC/CVC로는 각각 블루포인트/알토스벤처스/카카오벤처스를 꼽았습니다.

또한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서울창업허브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작년 대비 나아진 스타트업 분위기

#2025년은 경제 악화 전망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의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 시급

#정부지원사업 추진 증가

스타트업 투자자의 생각

2024년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2.6점, 58.0%가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등으로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경기 불황, 고금리/금리 인상 등의 경제 상황 및 투자 시장 위축으로 인해 전년 대비 올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5년은 경제위기 가능성/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현상 유지/부정 예상과 금리 변화로 인한 긍정 전망이 공존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는 55.8점을 주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 대비를 위해 스타트업들은 흑자 사업 집중,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다른 스타트업 투자자, 업계 지인 추천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며, 투자 결정 시 시장 성장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63%가 월 2회 이상 투자한 스타트업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펀드 운영 상 투자재원 조달 및 펀드 결성에, 투자 대상 발굴/집행 측면에서는 투자대상 기업가치 평가, 투자대상 기업 발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고금리로 투자 집행이 어려웠던 2024년 스타트업 시장

#2025년 경기 상황에 따른 부정 전망과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 전망 공존

#스타트업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 성장가능성

스타트업 재직자의 생각

41.5%가 스타트업 근무에 만족하여 높지 않은 만족도가 나타납니다.
자율적/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워라밸 보장은 만족스러우나, 낮은 재정적 보상이
가장 아쉬우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창의적' 이미지는 감소 추세입니다.

10명 중 3명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추천하는 경우 초기 투자유치(시리즈 A)
단계의 스타트업을 주로 추천합니다.
반면, 추천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입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61.0%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절반 가량이 이로 인해 지속 근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직 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복리/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가장 선호합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시리즈C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단계
스타트업을 선호하며, 소프트웨어/솔루션, 딥테크 분야로의 이직 희망이 많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가 빠른 성장세를 체감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10명 중 3~4명만이 스타트업 근무에 만족/추천 의향

#재정적 보상, 리스크/불안정성, 체계 미흡 아쉬움

#10명 중 6명이 투자 시장 위축 체감하며, 절반 가량 영향 받음

#대기업 이직 희망, 스타트업 중에서도 안정적인 시리즈C 투자 이상 선호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스타트업은 여전히 '혁신적/창의적', '젊은/새로운' 이미지이나, 이러한 긍정 인식은 감소하고, '불안정한/불투명한', '무모한/위험한'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1년 내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19.5%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직을 고려한 경우, 주로 높은 재정적 보상,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합니다. 전년 대비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시리즈A) 및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이커머스/유통,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희망률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예상으로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50.5%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창업 고려율은 2022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입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이커머스/유통 분야에 관심이 비교적 높습니다.

대기업 재직자는 빠른 성장/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으로 토스를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 인식 감소, 부정 인식 증가

#10명 중 2명만이 1년 내 스타트업 이직 고려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허들

#창업 고려율 감소 추세

취업 준비생의 생각

취업준비생에게도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가 강하나, 이들 긍정 이미지는 감소하였으며,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내 국내 중견기업, 공공기관/정부/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며,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4.5%로 적습니다.

그러나, 44.0%는 최근 1년 내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11%는 실제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지원 경험은 전년 대비 6%p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워라밸 보장,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시리즈 A 이전 초기 스타트업 취업 희망 비중이 증가세이며, 콘텐츠/미디어, 여행/레저 분야를 상대적으로 선호합니다.

취업준비생의 46.0%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농식품, 이커머스/유통, 콘텐츠/미디어 분야 창업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이커머스/유통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 감소,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 증가
- #스타트업 취업은 최선호는 아니지만, 약 44%가 고려하는 옵션
- #실제 지원 및 시리즈 A 이전 스타트업 취업 희망 증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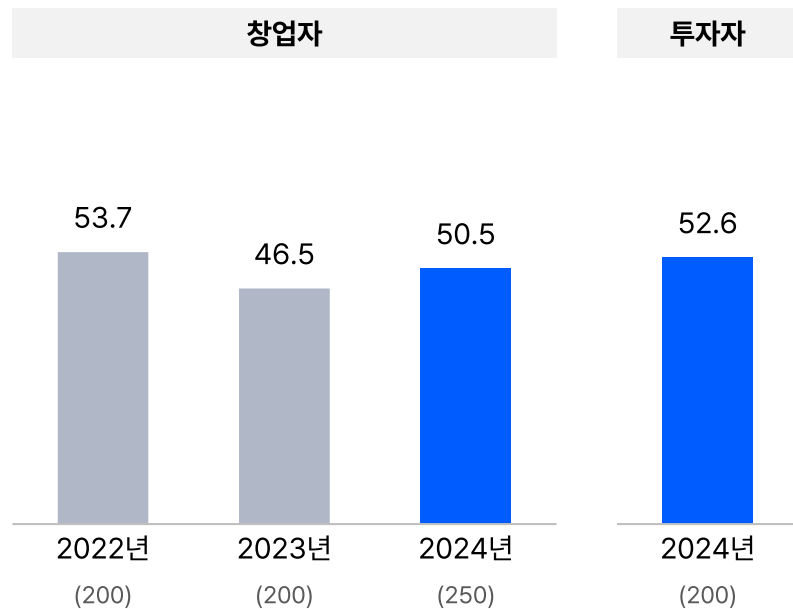
창업자와 투자자가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각 50.5점, 52.6점. 창업자의 부정 인식은 전년 대비 감소함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50.5점으로 작년 대비 4.0점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스타트업 투자자는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에 대해 평균 52.6점을 주어 창업자보다 소폭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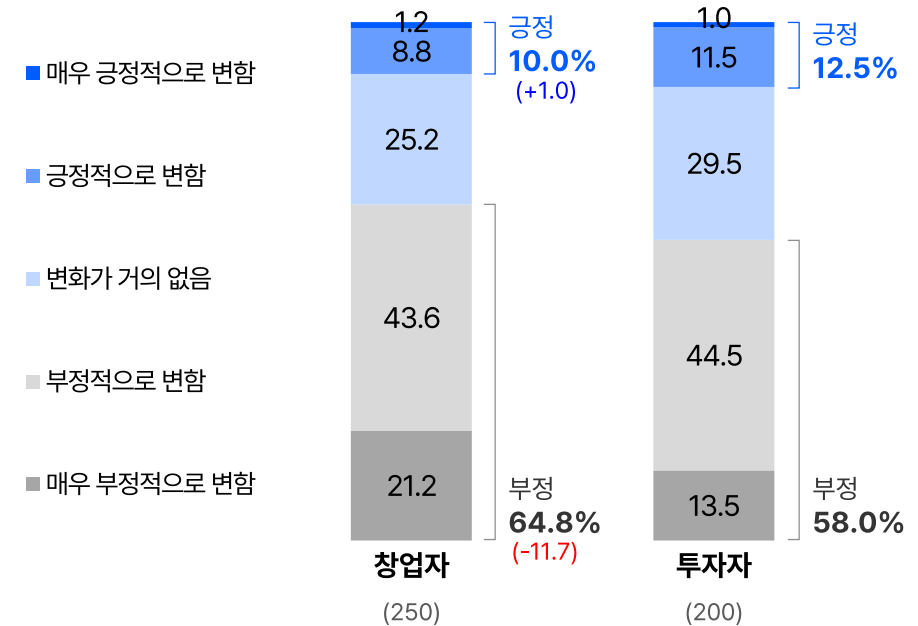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분위기에 대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0%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나, 창업자의 경우 전년 대비 부정 인식은 11.0%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 (±) 2023년 대비 증감, 투자자는 2024년 첫 조사로 전년 데이터 없음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Unit : %]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이유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등으로 작년 대비 '부정적 변화' 인식이 보다 높음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등의 측면에서 주로 부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투자자
부정 이유	1위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42.7%)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42.9%)
	2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41.8%)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38.3%)
	3위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0.7%)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30.3%)
	4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29.3%)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8.0%)
	5위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4.0%)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27.4%)
긍정 이유	1위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52.0%)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8.0%)
	2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4.0%)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40.0%)
	3위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32.0%)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36.0%)

[Base: 부정 변화 인식 창업자 (n=225) / 긍정 변화 인식 창업자 (n=25) / 부정 변화 인식 투자자 (n=175) / 긍정 변화 인식 투자자 (n=25),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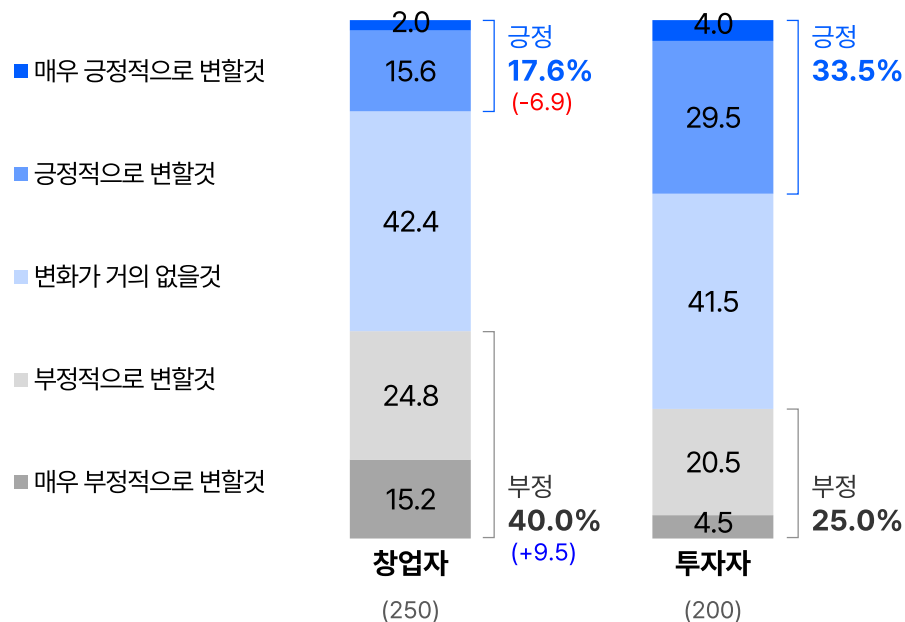
스타트업 생태계 향후 전망

2025년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향후 스타트업 분위기/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창업자, 투자자 대부분이 향후 1년 스타트업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거나(변화 없을 것),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높은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에서 기인합니다.

투자자는 창업자 대비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고 이는 금리 인하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창업자		투자자	
현상 유지/부정 이유	1위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35.9%)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33.8%)
	2위	무능한 정부/정책 부재 (12.1%)	무능한 정부/정책 부재 (15.8%)
	3위	반등/변화의 기미가 없음 (11.2%)	투자 위축 (6.8%)
	4위	금융/자금 경색 (5.8%)	정부 지원 감소, 글로벌 경기둔화, 반등/변화의 기미가 없음 (6.0%)
	5위	투자 위축 (4.9%)	스타트업 부정적인 인식 확대 (4.5%)
긍정 이유	1위	경제회복/활성화 (13.6%)	금리 변화 (28.4%)
	2위	자금 유입 확대, 생태계 정착, 정책 지원 강화(9.1%)	자금 유입 확대 (10.4%)
	3위	사회적인식 개선, 금리 변화, 스타트업의 노력 (6.8%)	사회적인식 개선, 투자 유치 활성화, 글로벌 경제회복 (4.5%)

* (±) 2023년 대비 증감, 투자자는 2024년 첫 조사로 전년 데이터 없음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Unit : %]

정부 역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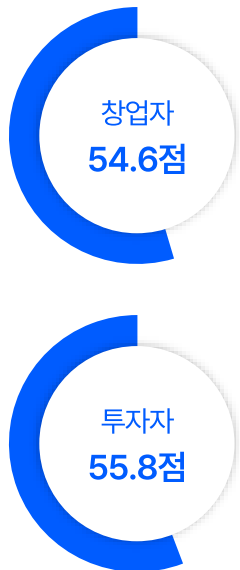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에 대한 창업자와 투자자의 평가는 각 54.6점, 55.8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창업자 54.6점, 투자자 55.8점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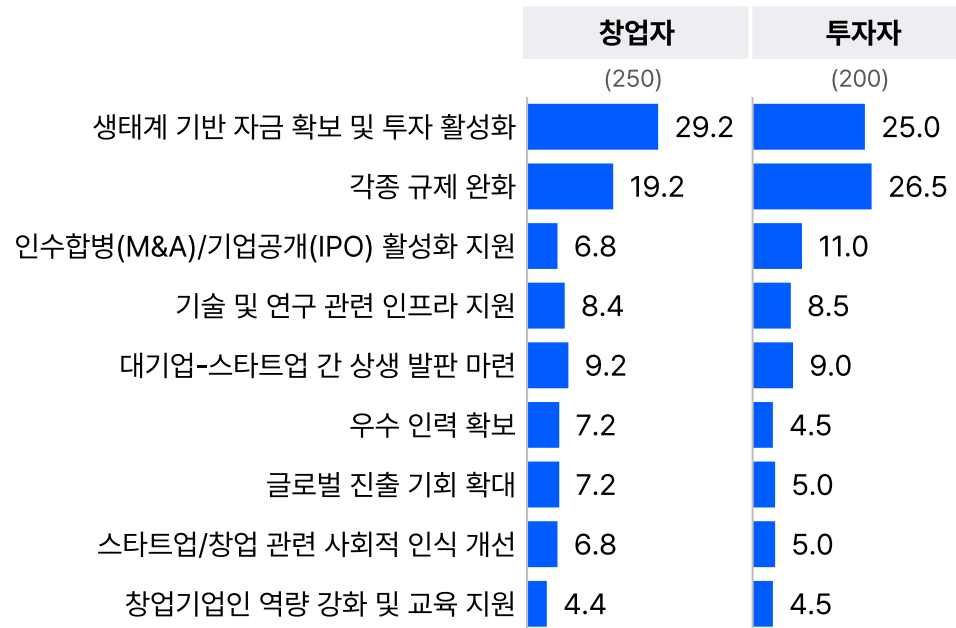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가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는 창업자, 투자자 모두 '세제혜택/세금감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



정부 규제 완화 선호 분야

	창업자 (110)	투자자 (99)
세제혜택/세금감면	13.6	10.1
각종 규제완화	10.0	7.1
지원자격 완화	6.4	0.0
투자규제 완화	6.4	4.0
스타트업 대출지원 확대	5.5	2.0
스타트업 규제 완화	4.5	9.1
샌드박스 관련 규제	1.8	6.1
법률적인 지원 확대	0.0	4.0
Negative 규제완화	0.0	4.0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Unit : %]

선호/적극적 기관 및 기업

‘블루포인트’,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서울창업허브’가 창업자가 꼽은 각 분야 선호 1위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사기업은 ‘네이버’, 공공기관은 ‘KISED(창업진흥원)’으로 인식

엑셀러레이터 중 ‘블루포인트’, 벤처캐피탈 중 ‘알토스벤처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중 ‘카카오벤처스’를 가장 많은 창업자가 선호합니다.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서울창업허브’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호 엑셀러레이터/VC/CVC/창업 지원 센터 1순위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창업지원 센터
1위	블루포인트 (8.0%)	알토스벤처스 (9.6%)	카카오벤처스 (10.4%)	서울창업허브 (11.6%)
2위	창조경제혁신센터 (7.2%)	한국투자파트너스 (8.4%)	삼성벤처투자 (8.0%)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본투글로벌) (10.4%)
3위	카이스트 청년창업지주 (6.4%)	KB인베스트먼트 (8.0%)	포스코기술투자 (6.8%)	구글스타트업캠퍼스 (9.2%)

스타트업 지원 적극적 기관 인식 1순위

기업	공공기관
네이버 (16.0%)	KISED(창업진흥원) (24.8%)
카카오, 삼성 (14.4%)	SBA(서울산업진흥원) (13.2%)
SK (11.6%)	CCEI (창조경제혁신센터) (10.8%)

[Base: 창업자 (n=25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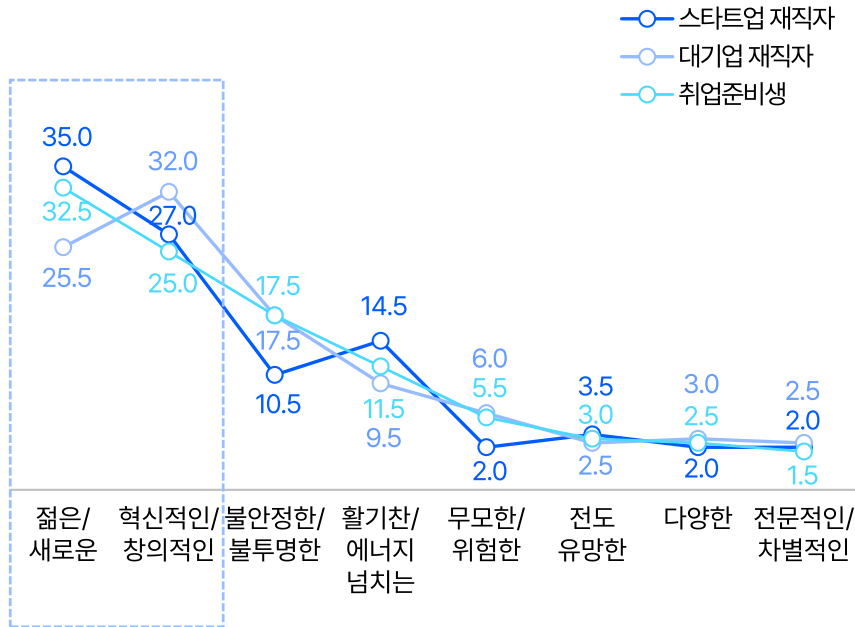
스타트업 전반 인식

‘젊은/새로운’, ‘혁신적/창의적’ 이미지 감소. 2024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토스’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모두 스타트업을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로 주로 인식하나, 이들 이미지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토스’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당근마켓’, ‘배달의민족’이 주로 응답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연상 이미지



전년 비 모든
그룹에서 감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Base)	(200)	(200)	(200)
토스	16.5	13.0	5.0
당근마켓	6.0	2.5	2.0
배달의민족	5.0	2.0	3.5
카카오	2.5	3.0	3.0
쿠팡	3.0	1.5	2.0
마켓컬리	1.5	2.5	2.0
무신사	1.0	2.0	1.5
없다/모름/무응답	25.5	42.0	53.5

일하는 방식 알고 싶은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Base)	(200)	(200)	(200)
토스	19.5	11.0	5.0
당근마켓	9.0	2.0	3.0
배달의민족	5.0	3.5	3.5
카카오	2.0	2.0	2.0
마켓컬리	2.0	2.0	2.0
네이버	1.0	3.0	1.5
쿠팡	2.0	1.5	1.5
없다/모름/무응답	34.5	55.0	61.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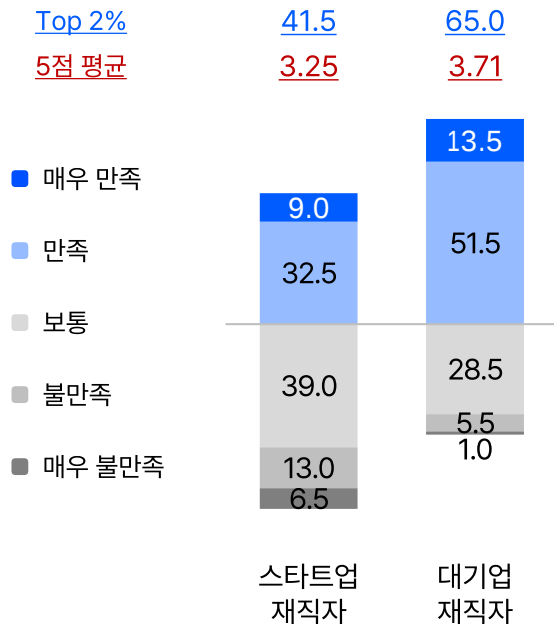
현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대기업 재직자 대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낮으며, '낮은 재정적 보상', '적은 복리/복지 혜택'이 주요 불만족 사유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의 65.0%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41.5%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5점 척도 Top2%: 만족+매우 만족 기준)

스타트업 재직자의 불만족 사유는 주로 낮은 재정적 보상, 적은 복리/복지 혜택,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 이유

- 1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41.0%)
- 2위 워라밸의 보장 (37.0%)
- 3위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30.0%)
- 4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2.5%)
- 5위 동료들의 뛰어난 역량 (17.5%)

불만족 이유

- 1위 낮은 재정적 보상 (45.0%)
- 2위 적은 복리/복지 혜택 (33.5%)
- 3위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31.0%)
- 4위 낮은 기업 인지도 (29.5%)
- 5위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26.5%)

대기업 재직자

- 1위 기업 인지도 높음 (48.5%)
- 2위 복리/복지 혜택 (45.5%)
- 3위 높은 재정적 보상 (44.5%)
- 4위 워라밸의 보장 (40.0%)
- 5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13.5%)

- 1위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44.0%)
- 2위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 (30.5%)
- 3위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26.0%)
- 4위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24.0%)
- 5위 낮은 재정적 보상 (23.5%)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5점 평균]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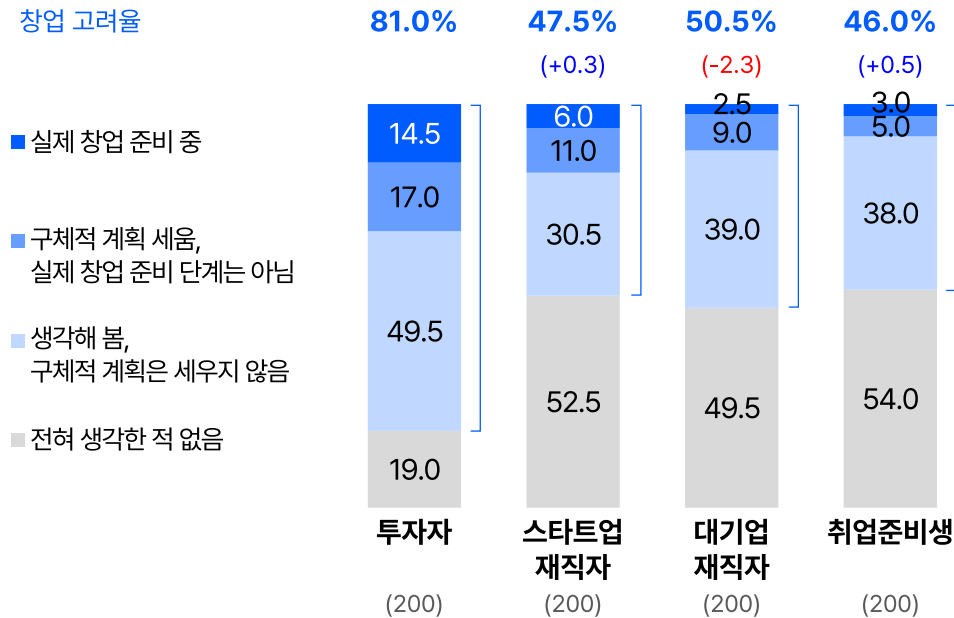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절반 가량이 최근 1년 내 창업을 고려함

1년 동안 투자자의 81.0%, 스타트업 재직자의 47.5%, 대기업 재직자의 50.5%, 취업 준비생의 46.0%가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의 창업 고려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대기업 재직자의 창업 고려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가 가장 많이 창업을 고려하는 업종은 이커머스/유통 분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 (±) 2023년 대비 증감, 투자자는 2024년 첫 조사로 전년 데이터 없음

창업 고려 업종

	투자자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162)	(95)	(101)	(92)
이커머스/유통	6.2	15.8	20.8	12.0
콘텐츠/미디어	8.6	11.6	9.9	10.9
농식품	3.7	3.2	9.9	19.6
소프트웨어/솔루션	8.6	13.7	7.9	5.4
패션/뷰티	2.5	9.5	7.9	7.6
금융/핀테크/블록체인	13.6	3.2	6.9	-
교육	3.7	6.3	3.0	8.7
여행/레저	4.3	2.1	7.9	6.5
광고/마케팅	4.3	7.4	4.0	4.3
딥테크	13.6	-	5.0	1.1
헬스케어/바이오	7.4	4.2	2.0	3.3
부동산/프롭테크	6.8	5.3	2.0	2.2
하드웨어/제조	1.9	6.3	2.0	1.1
기타	4.3	8.4	5.9	15.2

[Base: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스타트업 이직/취업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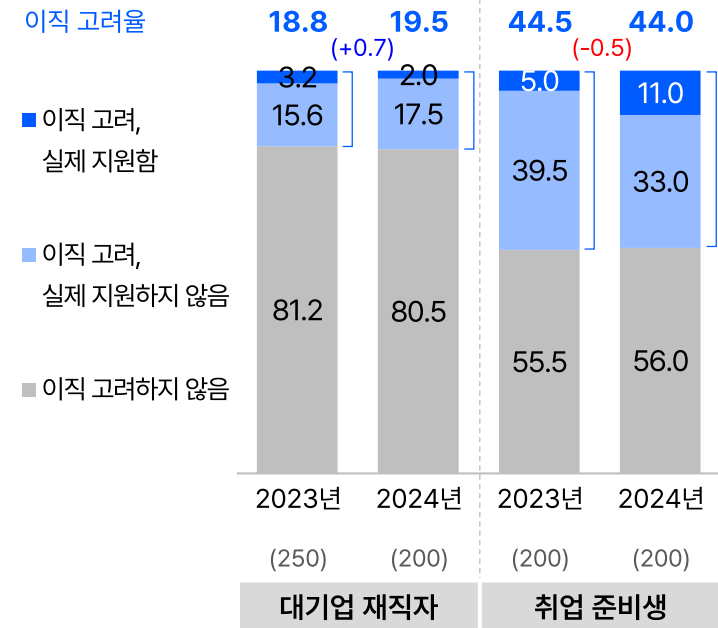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대기업 재직자 19.5%, 취업준비생 44.0%가 스타트업 이직/취업을 고려함

대기업 재직자 19.5%, 취업준비생 44.0%가 지난 1년 내 스타트업으로 이직 및 취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전년 대비 '실제 지원 경험' 비중이 6%p 증가하였습니다.

'워라벨 비보장',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낮은 재정적 보상'이 주요한 스타트업 이직/취업의 허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여부



* (±) 2023년 대비 증감, 투자자는 2024년 첫 조사로 전년 데이터 없음

대기업 재직자

고려 이유

- 1위 높은 재정적 보상,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 기대 (35.9%)
- 2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 (28.2%)
- 3위 워라벨 보장 기대 (25.6%)
- 4위 조직의 비전 및 전략 선호, 뛰어난 동료들의 역량 (23.1%)
- 5위 복리/복지 혜택 기대(20.5%)

비고려 이유

- 1위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47.8%)
- 2위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41.6%)
- 3위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39.8%)
- 4위 복리/복지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25.5%)
- 5위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9.3%)

취업준비생

- | |
|------------------------------------|
|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40.9%) |
| 워라벨 보장 기대,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4.1%) |
| 복리/복지 혜택 기대(28.4%) |
| 조직 문화선호 (22.7%) |
|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 (20.5%) |
|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42.0%) |
|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33.9%) |
|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27.7%) |
|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4.1%) |
| 복리/복지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20.5%) |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 현황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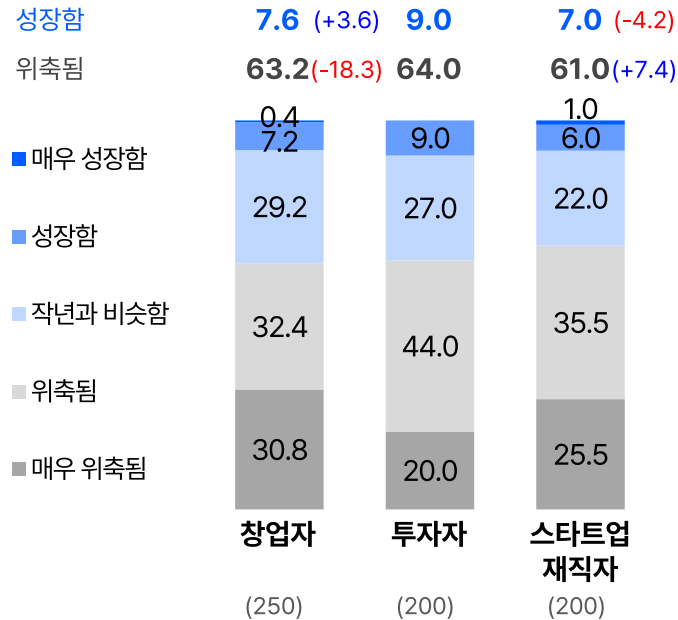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전년 대비 위축된 것으로 평가되나, 창업자의 위축/어려움 인식은 2023년 대비 감소함

창업자의 63.2%, 투자자의 64.0%, 스타트업 재직자의 61.0%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작년 대비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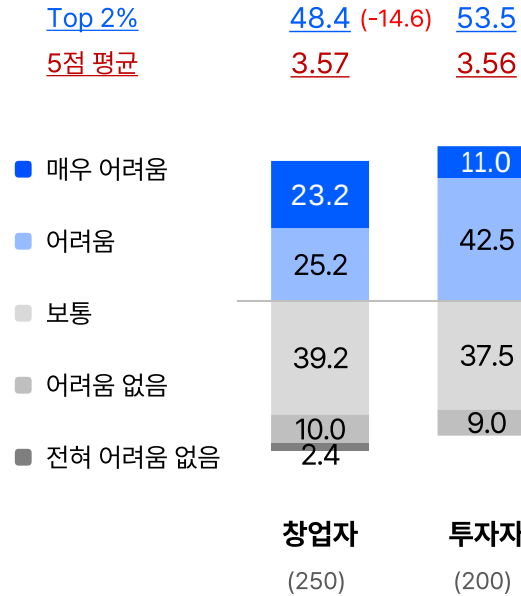
창업자의 경우, 위축 평가가 전년 대비 크게(-18.3%p) 감소하였으며, 투자 유치 어려움 응답 역시 전년 대비 감소(-14.6%p)하여 전년 대비 완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에 대비하여 창업자/투자자 과반 이상이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는 흑자 사업 집중, 기업 비용 절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 스타트업 투자 시장 평가



작년 대비 투자 유치/집행 현황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 대비책 인식

	창업자 (250)	투자자 (200)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53.2	51.0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49.6	29.5
기업 비용 절감	46.8	55.5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45.2	60.0
투자 유치 계획 조정	28.8	39.0
채용 축소	16.4	7.0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10.0	26.0

* (±) 2023년 대비 증감, 투자자는 2024년 첫 조사로 전년 데이터 없음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유망한 AI 산업 분야

창업자, 투자자 모두 40% 이상이 유망한 AI 분야로 '언어 지능 분야'를 꼽음

창업자는 AI 활용 분야 중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언어 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추론/지식 표현 및 범용 인공지능을 많이 응답한 반면, 투자자는 언어 지능, 범용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및 AI 특화 하드웨어 분야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언어 지능 외에, 창업자는 지능형 에이전트, 투자자는 범용 인공지능(AGI) 분야를 높게 응답한 점이 눈에 띕니다.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Unit : %]

* ■ 상위 3순위 응답

직무 AI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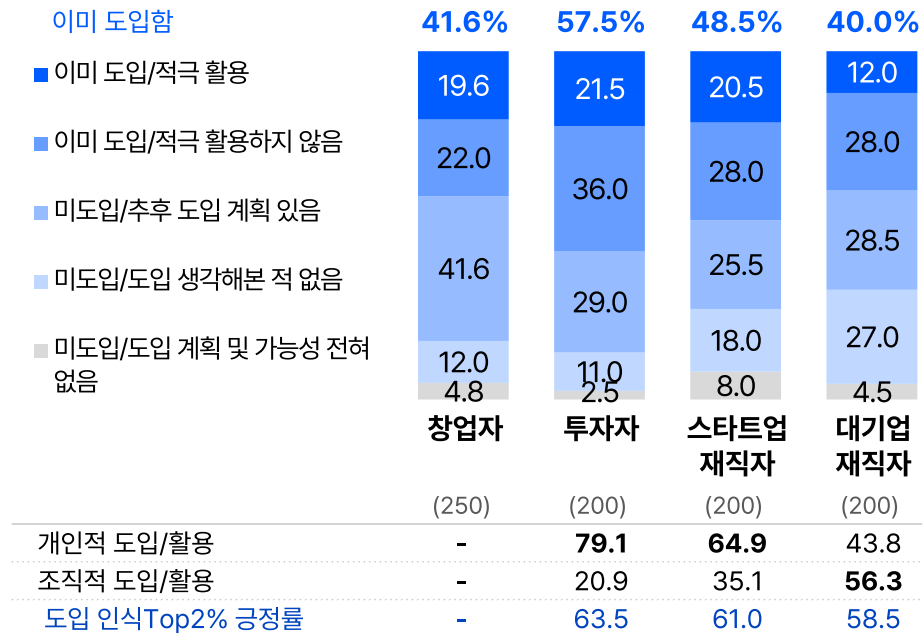
40% 이상이 회사/업무에 AI를 도입하였으며, 직장인의 10명 중 6명 가량이 AI 직무 도입에 긍정적임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의 40% 이상이 현재 본인의 회사 및 업무에 AI를 도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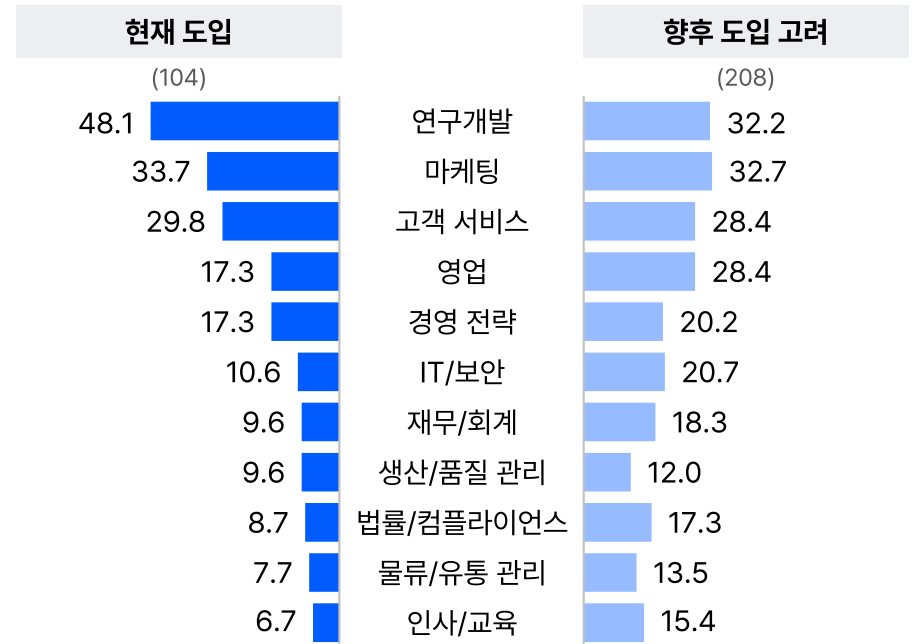
투자자와 스타트업 재직자는 주로 AI 직무 도입을 개인적으로 결정/활용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재직자는 회사의 결정 하에 조직적으로 도입/활용하는 비중이 보다 높습니다.

투자자/재직자 10명 중 6명 가량이 AI 직무 도입에 긍정적이며, 창업자의 경우 주로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무 AI 도입 현황



[창업자] 현재 및 향후 AI 도입 분야/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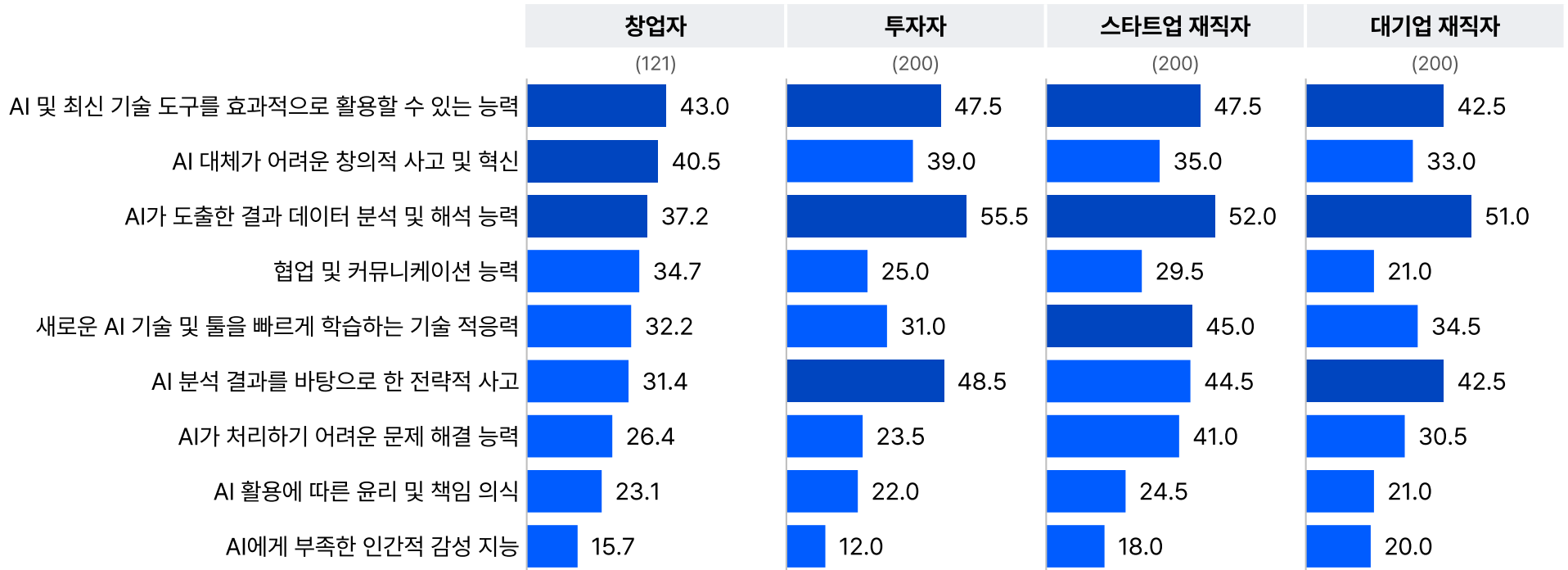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121) /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업무에 AI를 도입한 창업자 (n=104) / 업무에 AI를 도입/도입 고려한 창업자 (n=208), Unit : %]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 요구 역량 인식

AI 도입으로 '데이터 분석/해석 능력', '효과적 활용 능력'이 보다 중요한 직무 역량이 될 것이라고 인식함

창업자, 투자자, 재직자 모두 'AI 및 최신 기술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I가 도출한 결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을 AI 도입으로 인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중요 직무 요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는 창업자가 'AI 및 최신 기술 도구 활용 능력'을 1순위로 꼽은 반면, 투자자와 스타트업/대기업 재직자들은 'AI가 도출한 결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을 1순위로 꼽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Base: 창업자 (n=121) /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 ■ 상위 1순위, 1+2+3순위 응답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1. 창업자

규모 총 250명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3년차 이하 75명(2021 ~ 2024년 창업)

4년-5년차 63명(2019 ~ 2020년 창업)

6년차 이상 112명(2018년 이전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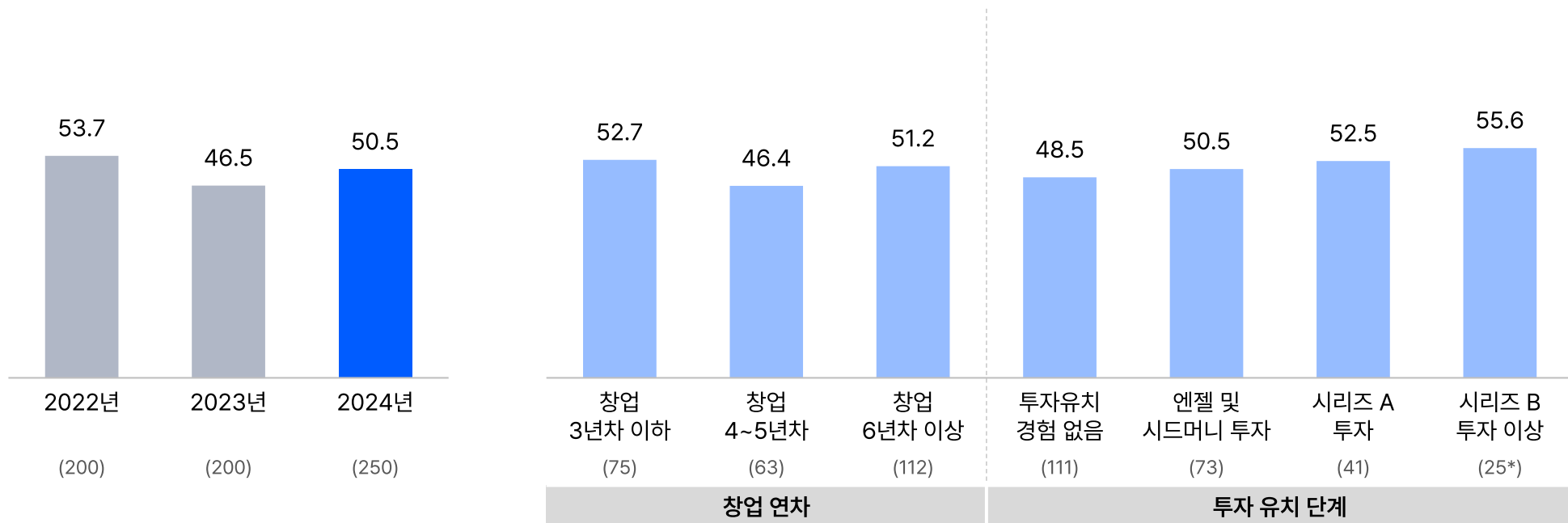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0.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반등함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50.5점으로 작년 대비 4.0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가 높은 창업자 일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Base: 창업자 (n=25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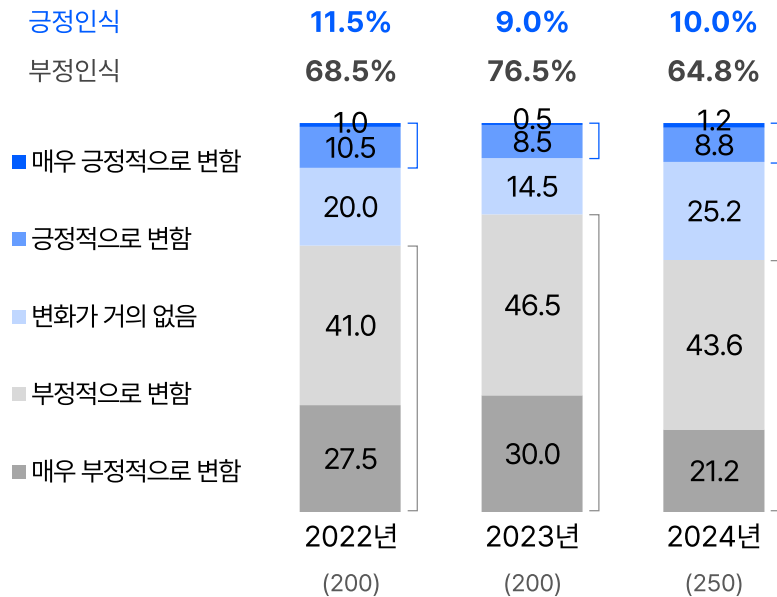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등으로 작년 대비 '부정적 변화' 인식이 높음

64.8%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여,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작년 대비해서는 부정 응답 비중이 11.7%p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부정 변화 인식 이유 (n=225)

•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42.7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41.8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0.7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29.3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4.0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3.6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21.8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미흡	20.0
• 저조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17.8

긍정 변화 인식 이유 (n=25*)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52.0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4.0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32.0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28.0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강화	24.0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0.0
•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20.0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16.0
• 활성화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16.0

[Base: 창업자 (n=250), Unit :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1+2+3순위 기준 / 10% 미만 응답 절삭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26

Q. 지난해(2023년)와 비교 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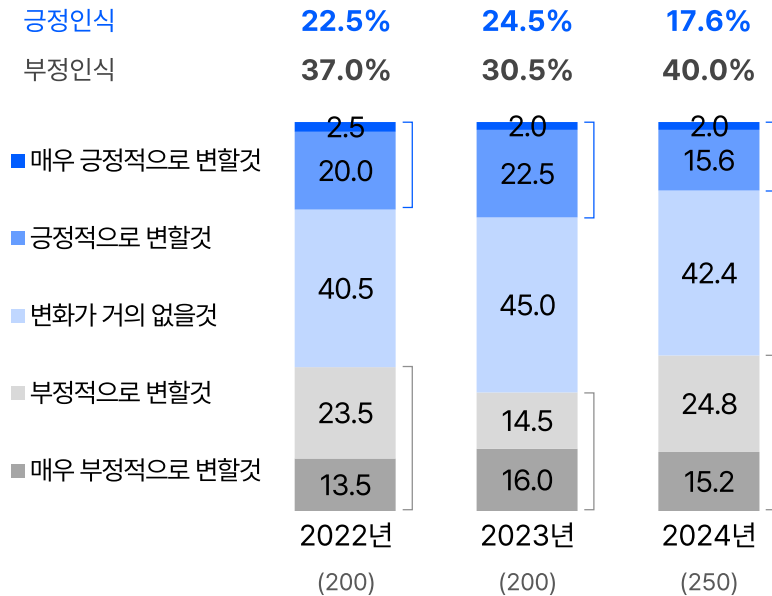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2025년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향후 스타트업 분위기/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부정적 변화를 예상함

42.4%는 2025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40.0%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긍정보다는 '현상 유지/부정' 예상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주로 높은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에서 기인합니다.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현상 유지/부정 변화 전망 이유 (n=206)



긍정 변화 전망 이유 (n=44)



[Base: 창업자 (n=250), Unit : %]
^ 부정변화 이유 3% 미만/긍정 변화 이유 5%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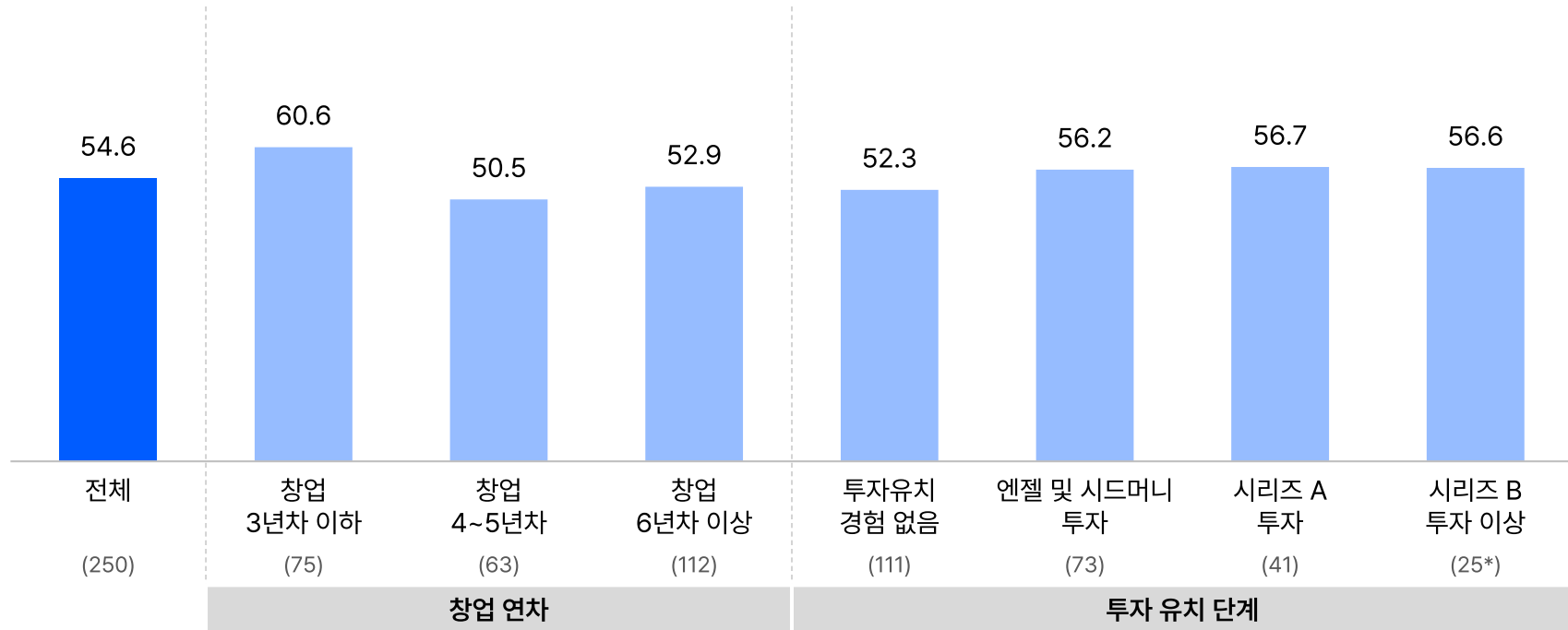
Q. 앞으로 일 년 후(2025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평가는 54.6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54.6점을 주었습니다.

창업 3년차 이하의 초기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60.6점)를 주었습니다.



[Base: 창업자 (n=25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도움이 된 정부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추가적으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를 기대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으로 '사업비 지원', '세제 지원',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지원',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연구/기술개발 부문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지원'을 3순위 내 선택한 비중은 12.8%p 감소한 반면, 해외 진출/글로벌화 지원은 4.0%p 증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1+2+3순위)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

• 투자/자금 지원 확대	21.2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12.4
• 지원 활성화	8.8
• 세제 지원 (소득세 감면, 인건비 보조 등)	6.4
• 실무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립	5.6
• 다양한 기업에 투자/지원	4.0
• 제도 홍보/정보 확대	3.2

[Base: 창업자 (n=250), Unit : %]

*기대사항 3% 미만 응답 절삭

Q.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부가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관련 정부의 시급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정부 시급 개선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가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전년 대비 5.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2명 가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Base: 창업자 (n=250), Unit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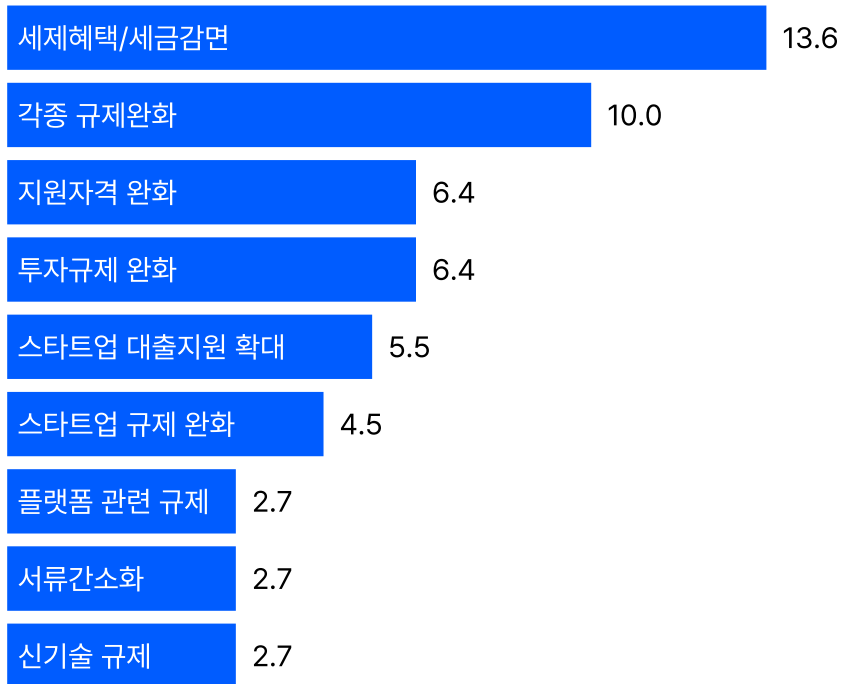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화 필요 정부 규제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 '세제혜택/세금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이 응답됨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는 '세제혜택/세금감면', '각종 규제 완화', '지원자격 완화', '투자규제 완화' 등이 주로 응답 되었습니다.

세금, 대출 등 금융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그 외 사업/기술 규제 완화, 지원 자격 및 서류 간소화 등 절차 완화 측면 내용이 주로 확인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 순환이 어려움. 이에 세제 혜택이 필요함. 법인세 내고 나면 잔고 부족을 겪음"

"대출 자격 제한 완화, 한도 상승, 금리 인하 등 금융적인 부분 및 세제 혜택 등 세금 관련 부문"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안 좋아진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대출 기회 확대"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지원"

"신규 플랫폼에 대한 규제완화"

"제품 및 공장 등에 수반되는 각종 인증들.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너무 높으며 형식적인 인증들이 너무 많음"

"자금지원에 대한 복잡한 서류절차 및 심사 간소화"

"정부나 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또는 자금지원 사업은 신청하는 요건 등이 스타트업의 신청 자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실적, 자본잠식 등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술 스타트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Bas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110), Unit : %]

* 2% 미만 응답 절삭

Q. 완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관련 어려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야)

회사 운영과 관련해 주로 '성장 전략', '자금 확보', '투자' 관련 조언을 희망함

스타트업 창업자는 창업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성장 전략, 자금 확보, 투자 조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창업 연차 및 투자 유치 단계 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3순위

1순위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50)		(75)	(63)	(112)	(111)	(73)	(41)	(25*)
성장 전략	16.447.6		48.0	44.4	49.1	54.1	39.7	46.3	44.0
자금 확보	21.245.2		50.7	46.0	41.1	54.1	45.2	29.3	32.0
투자 관련	16.844.8		56.0	44.4	37.5	45.0	47.9	43.9	36.0
전략 로드맵	7.626.8		24.0	30.2	26.8	26.1	27.4	29.3	24.0
경영 전반	12.825.6		25.3	31.7	22.3	25.2	26.0	29.3	20.0
해외/글로벌 진출	8.422.8		16.0	23.8	26.8	16.2	28.8	31.7	20.0
조직 관리	5.220.0		12.0	25.4	22.3	14.4	19.2	24.4	40.0
인사 관리	7.616.0		10.7	19.0	17.9	10.8	19.2	19.5	24.0
의사결정 구조/시스템	2.812.0		16.0	14.3	8.0	12.6	9.6	14.6	12.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50), Unit : %]
^ 전체 1+2+3순위 기준 Sorting / 배너 1+2+3순위 기준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32

Q. 창업하신 회사 운영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투자 유치 시 어려움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 산정/인정(밸류에이션)' 및 '제품 서비스 이해/설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투자 유치 시 가장 많은 창업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이었으며, 다음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해/설득 시키기'가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와 무관하게 투자 유치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50)	(75)	(63)	(112)	(111)	(73)	(41)	(25*)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	38.0	34.7	36.5	41.1	34.2	42.5	41.5	36.0
제품 및 서비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22.0	25.3	17.5	22.3	23.4	19.2	26.8	16.0
투자자에 대한 정보 파악	13.6	13.3	14.3	13.4	14.4	13.7	12.2	12.0
투자유치 조건 협의	12.8	10.7	19.0	10.7	8.1	19.2	14.6	12.0
엄격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	12.4	13.3	11.1	12.5	17.1	5.5	4.9	24.0
기타	1.2	2.7	1.6	-	2.7	-	-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5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투자 유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어려움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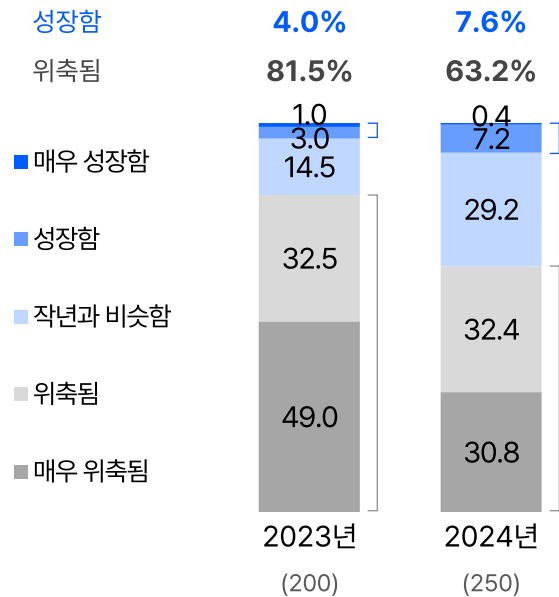
경기 불황 등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위축/어려움 인식이 감소함

63.2%가 전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나, 전년 대비해서는 위축 응답 비율이 크게(-18.3%p)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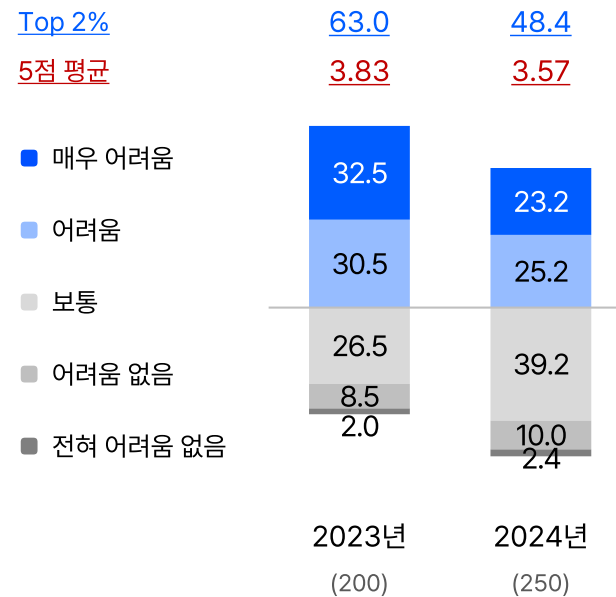
또한, '투자 유치 어려움' 응답 비중 역시 전년 대비 14.6%p 감소하여 전년 대비 비교적 완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 주로 '경기 불황' 등 경기/시장 상황을 주요한 사유로 꼽았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 인식



작년 대비 투자 유치 현황



작년 대비 투자 유치 어려워진 이유 (n=121)

경기/시장 상황	57.9
• 경기 불황	38.8
• 시장상황 악화	9.1
• 고금리/금리인상	5.8
투자시장 상황	34.7
• 투자시장 위축	8.3
• 투자 기준 변화/엄격한 투자 기준	5.8
• 투자시장의 자금 부족	5.8
• 자금시장 경색	4.1
• 소극적 투자	3.3
기업 운영 상황	12.4
• 매출감소	4.1
• 성장 부족	4.1
정책	9.9
• 정부 정책 변화	5.0
• 지원금 감소	3.3

[Base: 창업자 (n=250), Unit : %]

*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유 3%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해(2023년)와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창업하신 기업의 투자유치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 대비책으로 '정부지원사업 추진' 증가세, 창업 연차 낮을 수록 의존도 높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 대비책으로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기업 비용 절감', '흑자 사업 집중' 등을 고려합니다.

2022년 이후 '투자 유치 계획 조정'은 감소한 반면, '정부지원사업 추진' 비중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며,

특히 창업 3년차 이하 창업자의 경우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대비하고자 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2022년 전체	2023년 전체	2024년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200)	(250)	(75)	(63)	(112)	(111)	(73)	(41)	(25*)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41.5	54.0	53.2	62.7	54.0	46.4	55.9	58.9	41.5	44.0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24.0	43.0	49.6	65.3	52.4	37.5	55.9	54.8	43.9	16.0
기업 비용 절감	52.0	46.5	46.8	33.3	47.6	55.4	45.9	45.2	53.7	44.0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48.5	51.0	45.2	42.7	46.0	46.4	42.3	52.1	46.3	36.0
투자 유치 계획 조정	43.5	34.0	28.8	34.7	22.2	28.6	18.0	37.0	34.1	44.0
채용 축소	27.0	20.5	16.4	6.7	14.3	24.1	10.8	17.8	26.8	20.0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17.0	13.5	10.0	-	11.1	16.1	7.2	9.6	14.6	16.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50), Unit : 1+2+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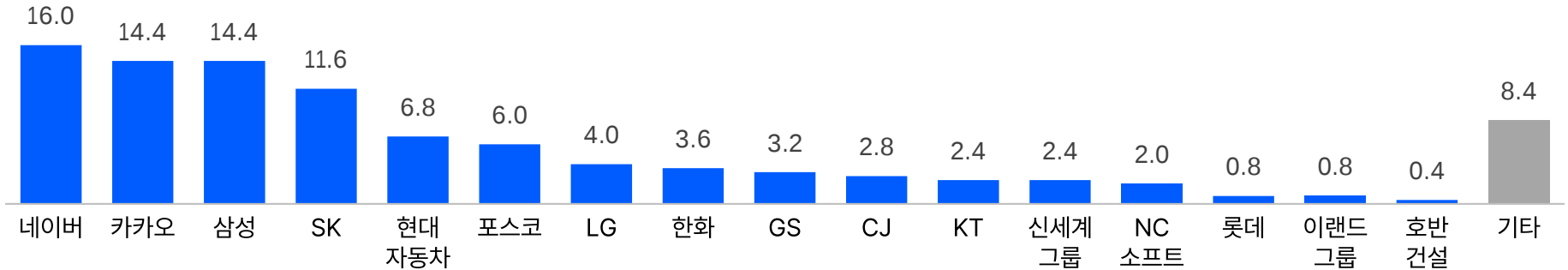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로 인해 발생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 이신가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기업 인식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꼽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네이버'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어 '카카오', '삼성',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습니다.



[Base: 창업자 (n=25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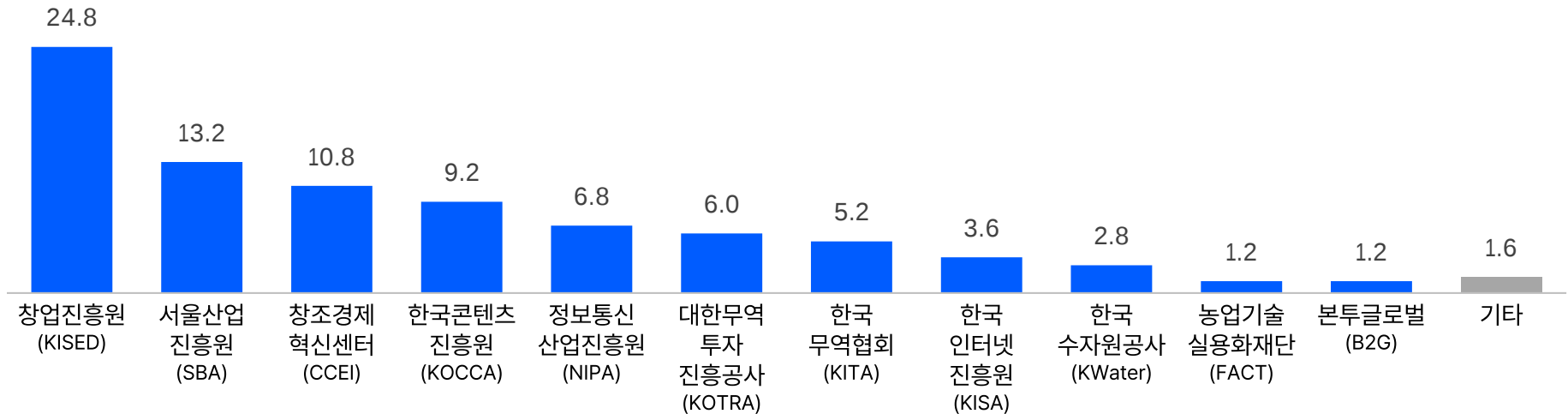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공공기관 인식

공공기관 중 'KISED(창업진흥원)', 'SBA(서울산업진흥원)', 'CCEI(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함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 'KISED(창업진흥원)'를 꼽았습니다.

이어 'SBA(서울산업진흥원)', 'CCEI(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 이상 응답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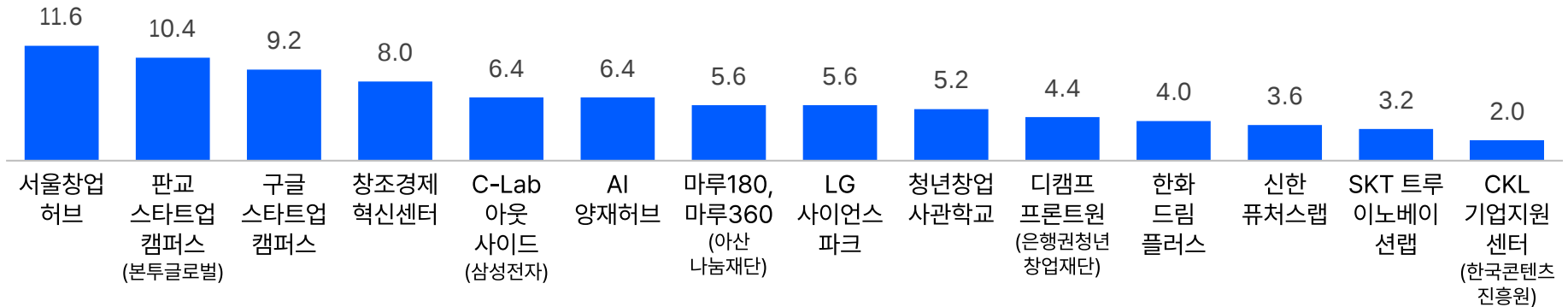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50), Unit : %]

입주/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 11.6%가 '서울창업허브' 응답

11.6%가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 '서울 창업허브'를 꼽았으며, 이어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응답되었습니다.



[Base: 창업자 (n=250), Unit : %]
* 2%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최선호 액셀러레이터는 '블루포인트', 벤처캐피탈은 '알토스벤처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카카오벤처스' 임

다음으로 액셀러레이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카이스트청년창업지주, 벤처캐피탈은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삼성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선호 액셀러레이터

	전체
(Base)	(250)
블루포인트	8.0
창조경제혁신센터	7.2
카이스트청년창업지주	6.4
스파크랩	5.2
소풍벤처스	5.2
프라이머	4.4
퓨처플레이	3.6
미래과학기술지주	3.6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3.6
인포뱅크	3.6
더벤처스	3.2
크립톤	3.2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팜	2.8
서울대기술지주	2.4
매쉬업엔젤스	2.4
씨엔티테크	2.4

[Base: 창업자 (n=250), Unit : %]

* 2% 미만 응답 절삭

선호 벤처캐피탈(VC)

	전체
(Base)	(250)
알토스벤처스	9.6
한국투자파트너스	8.4
KB인베스트먼트	8.0
미래에셋벤처투자	6.4
SBVA(소프트뱅크벤처스)	3.6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3.6
스틱인베스트먼트	3.6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8
SV인베스트먼트	2.4
IMM인베스트먼트	2.4
스톤브릿지벤처스	2.0
캡스톤파트너스	2.0
SBI인베스트먼트	1.6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6

[Base: 창업자 (n=250), Unit : %]

* 1.5% 미만 응답 절삭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전체
(Base)	(250)
카카오벤처스	10.4
삼성벤처투자	8.0
포스코기술투자	6.8
네이버 D2SF	6.0
현대자동차 제로원	5.2
두나무앤파트너스	5.2
신한벤처투자	3.6
아주IB투자	3.6
하나벤처스	3.2
롯데벤처스	3.2
CJ인베스트먼트	2.8
키움인베스트먼트	2.4
한화인베스트먼트	2.4
KT인베스트먼트	2.0

[Base: 창업자 (n=250), Unit : %]

* 2% 미만 응답 절삭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2.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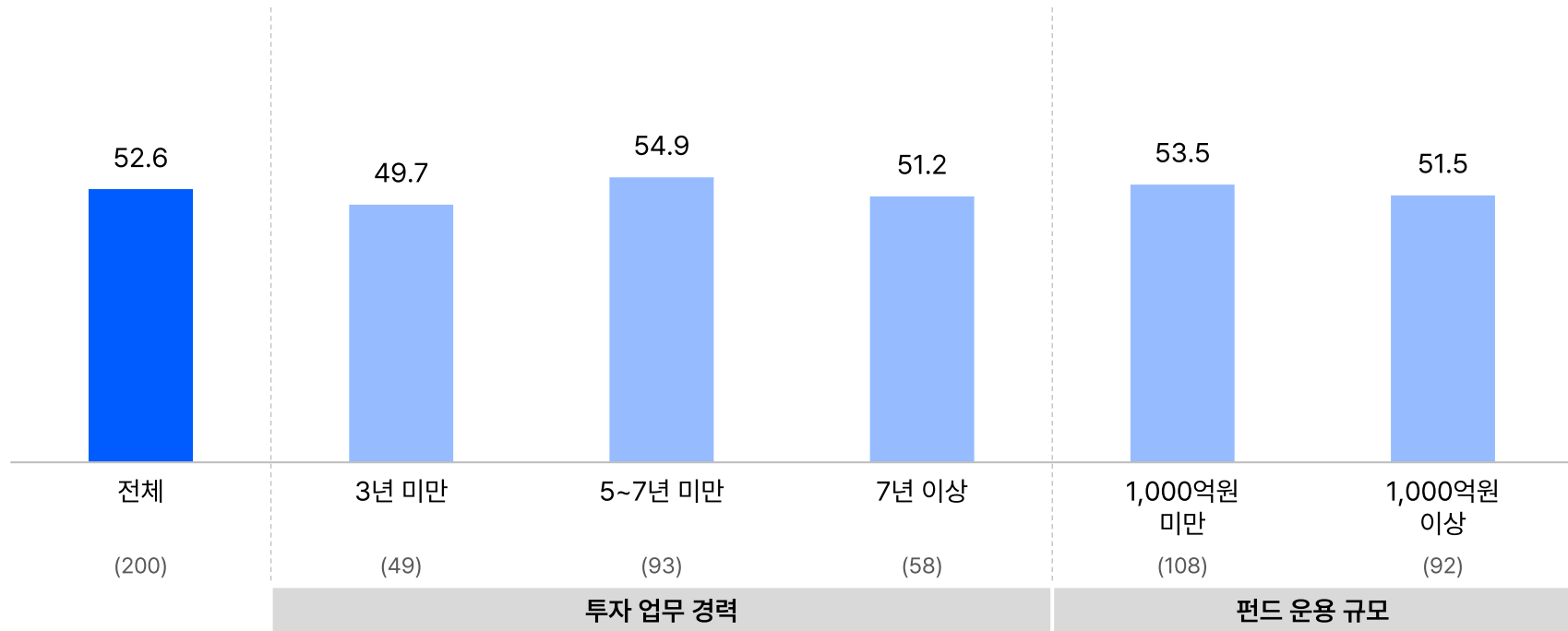
규모 총 200명

대상 스타트업 투자자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2.6점

투자자 200명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52.6점이었습니다.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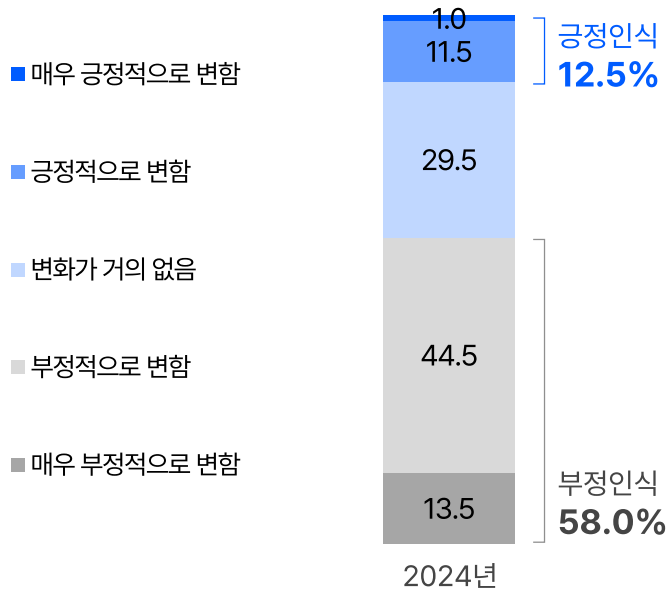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과반 이상의 투자자가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등으로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인식함

투자자의 58.0%가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등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부정 변화 인식 이유 (n=175)

•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42.9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38.3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30.3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8.0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27.4
• 저조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26.9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2.9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18.9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미흡	15.4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약화	10.9

긍정 변화 인식 이유 (n=25*)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8.0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40.0
•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36.0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36.0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강화	24.0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0.0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20.0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16.0
• 대기업과의 조화로운 산업 구조 달성	12.0

[Base: 투자자 (n=200), Unit :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1+2+3순위 기준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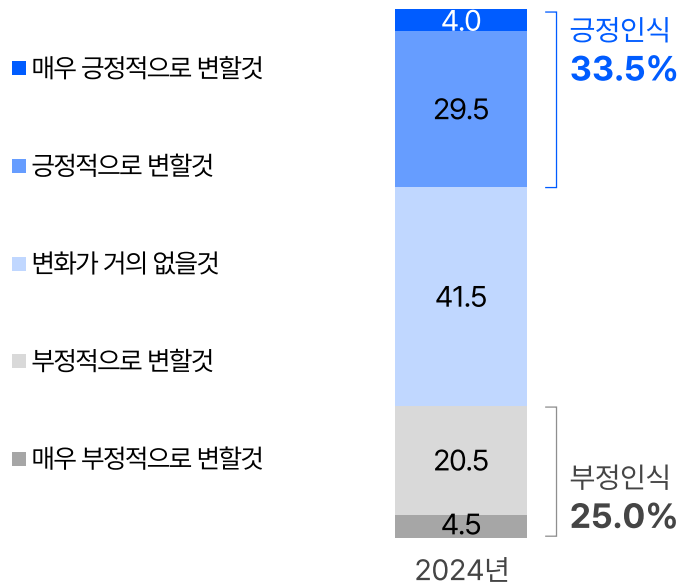
Q. 지난해(2023년)와 비교 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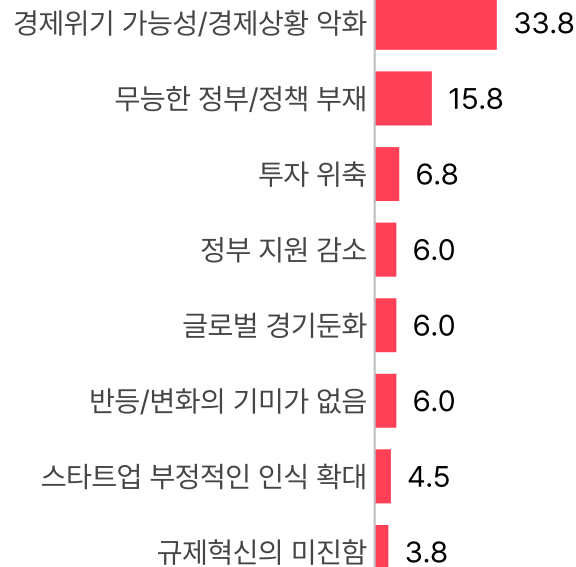
투자자의 2025년 전망은 경제위기 가능성/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현상 유지/부정 예상과 금리 변화로 인한 긍정 예상이 공존함

2025년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 전망에 대해 41.5%가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변화를 예상한 경우 긍정 인식(33.5%)이 부정 인식(25.0%) 대비 높고, 그 이유로 금리 변화 등 경기 회복 전망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상 유지/부정 예상 이유로는 주로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를 언급했습니다.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현상 유지/부정 변화 전망 이유 (n=133)



긍정 변화 전망 이유 (n=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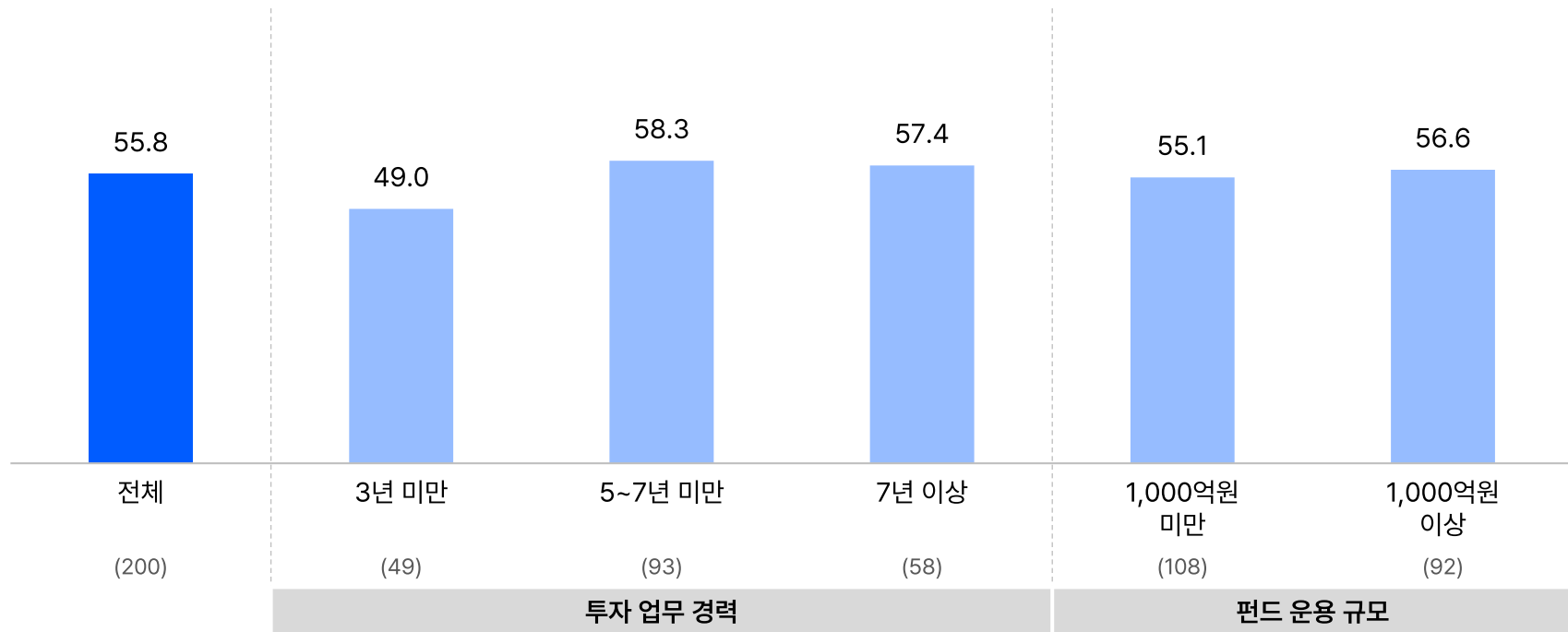
[Base: 투자자 (n=200), Unit : %]
^ 부정변화 이유 3% 미만/긍정 변화 이유 3% 미만 응답 절삭

Q. 앞으로 일 년 후(2025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자의 평가는 55.8점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100점 만점 중 평균 55.8점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사업비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으로 생각하며, 추가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를 기대함

투자자의 47.0%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던 정부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으로는 ‘투자/자금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이 주로 응답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1+2+3순위)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

• 투자/자금 지원 확대	22.0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14.0
• 세제 지원 (소득세 감면, 인건비 보조 등)	7.0
• 해외 진출/글로벌화 지원	7.0
• 투자펀드 확대	6.5
• 지원 활성화	6.0
• 실무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립	4.5
• 사업비 지원 (팁스 등)	3.5
•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지원	3.0
• 제도 홍보/정보 확대	3.0

[Base: 투자자 (n=200), Unit : %]

*기대사항 3% 미만 응답 절삭

Q.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부가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점

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 인식이 높음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가 가장 많이 응답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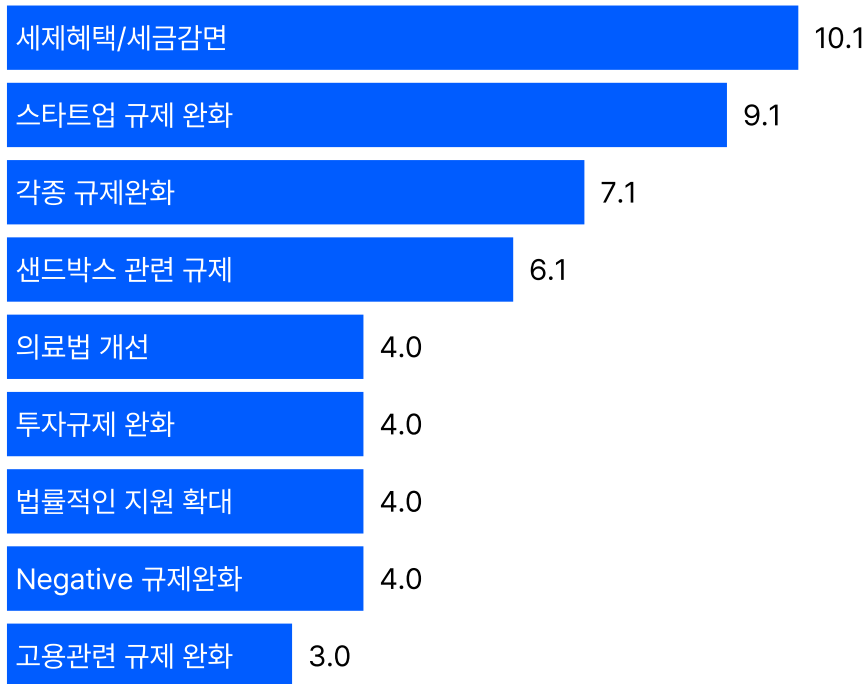
[Base: 투자자 (n=200), Unit : 1순위%]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화 필요 정부 규제

세제혜택/세금감면 및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의료법,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 세제혜택/세금감면 및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의료법,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므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법과 원칙으로는 스타트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더 빠른 성장과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해 예외 조항 및 성장
후 보완 정책이 필요함"

"플랫폼 산업 규제 입법 이슈
완화를 통한 자유 경쟁 도입"

"기존 산업체 보호 관점 외에 신규 산업
시장 진입 문호 개방. 시장 경쟁 기회
부여"

"딥테크에 대한 그레이한 영역이
있을 때 규제부터 진행.
Ai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함"

"자본의 규제나 상장 등 자본시장 진출 시
최소 충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법인세, 고용정책의 유연성, 투자 자금의
유연한 활용처"

[Bas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99),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Q. 완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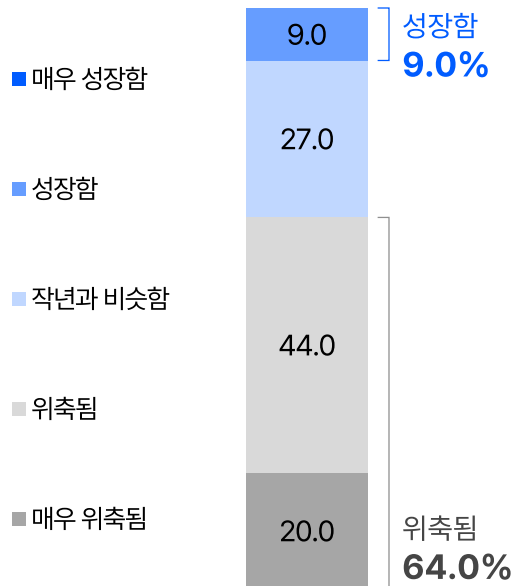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과반 이상이 경기 불황, 고금리 등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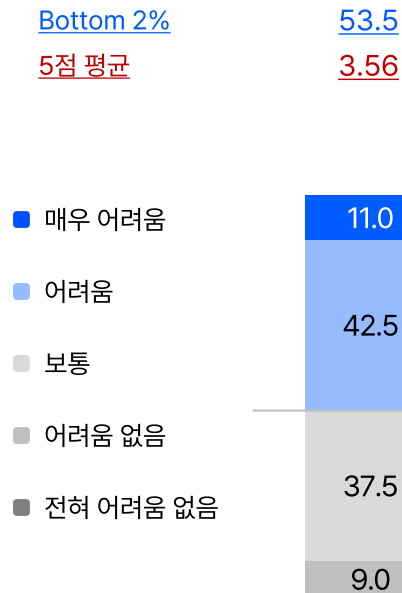
64.0%의 투자자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53.5%가 전년 대비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로 경기 불황, 고금리/금리인상 등의 경제 상황 및 투자 시장 위축으로 인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 인식



작년 대비 투자 집행 현황



작년 대비 투자 집행 어려워진 이유 (n=107)

경기/시장 상황	54.2
• 경기 불황	30.8
• 고금리/금리인상	10.3
• 시장상황 악화	7.5
투자시장 상황	47.7
• 투자시장 위축	11.2
• 자금시장 경색	9.3
• 기존 스타트업들 실패로 투자 위축	5.6
• 투자 기준 변화/엄격한 투자 기준	4.7
• 투자시장의 자금 부족	3.7
• 투자금 회수 어려움	3.7
• 스타트업 발굴의 어려움	3.7
기업 운영 상황	10.3
• 수익성 악화	4.7

[Base: 투자자 (n=200), Unit : %]

*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유 3%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해(2023년)와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검토하신 투자 집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크 대비책은 '흑자 사업 집중',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에 대비책으로 '흑자 사업 집중', '기업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을 주로 꼽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업무 경력			펀드 운용 규모	
		3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Base)	(200)	(49)	(93)	(58)	(108)	(92)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60.0	57.1	59.1	63.8	59.3	60.9
기업 비용 절감	55.5	53.1	58.1	53.4	53.7	57.6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51.0	55.1	52.7	44.8	50.0	52.2
투자 유치 계획 조정	39.0	34.7	35.5	48.3	38.0	40.2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29.5	20.4	30.1	36.2	29.6	29.3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26.0	28.6	23.7	27.6	26.9	25.0
채용 축소	7.0	2.0	10.8	5.2	8.3	5.4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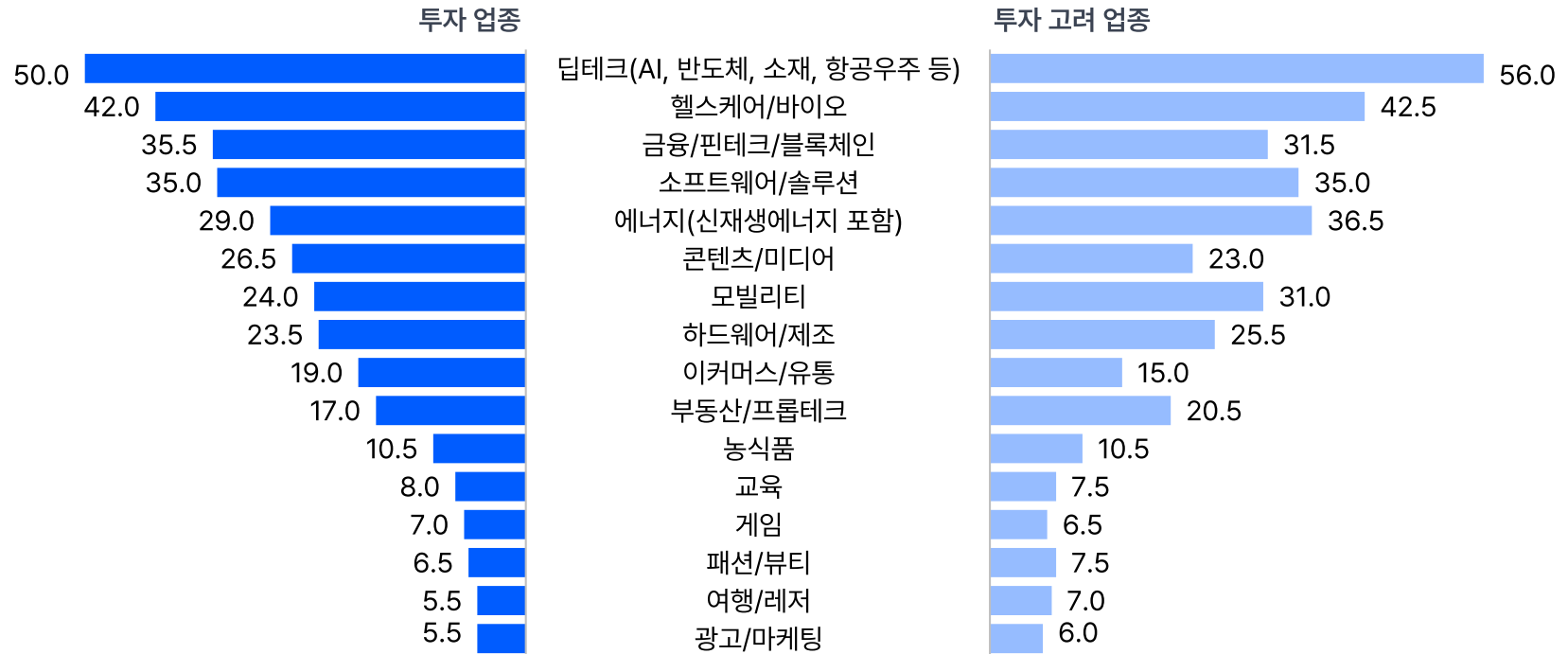
[Base: 투자자 (n=200), Unit : 1+2+3순위 %]

투자 업종/투자 고려 업종

현재 투자 및 향후 투자 고려 업종 1순위는 딥테크, 2순위는 헬스케어/바이오

조사에 참여한 투자자는 주로 딥테크, 헬스케어/바이오,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소프트웨어/솔루션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딥테크, 헬스케어/바이오, 에너지, 소프트웨어/솔루션,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모빌리티 순으로 나타납니다.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현재 투자하시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투자 대상 발굴 경로/투자 결정 요인

주로 다른 스타트업 투자자, 업계 지인 추천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며, 시장 성장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 결정함

투자 대상 발굴 및 소싱 경로로는 '다른 스타트업 투자자, 업계 지인의 추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결정 시 '시장 성장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다음으로 투자 예상 수익률, 투자금 조기/적정시기 회수 가능성, 글로벌 진출/성장 가능성 등을 살핍니다.

투자 대상 발굴 경로



스타트업 투자 결정 요인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투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딜 소싱(deal sourcing) 경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요인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가요?

투자 스타트업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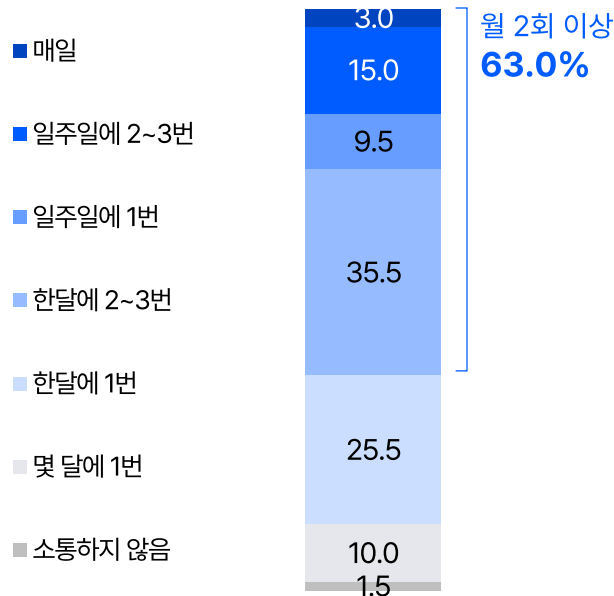
63%가 투자한 스타트업 관계자와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63.0%가 투자를 완료한 스타트업 관계자와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투자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 가이드를 제공하며, 다른 투자자에게 추천/소개, 고객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투자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 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가이드 제공 비중이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투자 스타트업 관계자 소통 빈도



투자 스타트업 성장 및 기업가치 증대 활동

	전체	투자 업무 경력		
		3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Base)	(200)	(49)	(93)	(58)
기업성장을 위한 전략가이드 제공	65.0	63.3	61.3	72.4
다른 투자자에게 추천 또는 소개	57.0	55.1	57.0	58.6
고객과 연결	46.5	42.9	50.5	43.1
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가이드 제공	45.0	42.9	37.6	58.6
경영진 채용 지원	21.0	12.2	22.6	25.9
직원 채용 지원	13.0	14.3	15.1	8.6
기타	4.0	4.1	4.3	3.4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투자를 완료한 스타트업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미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 또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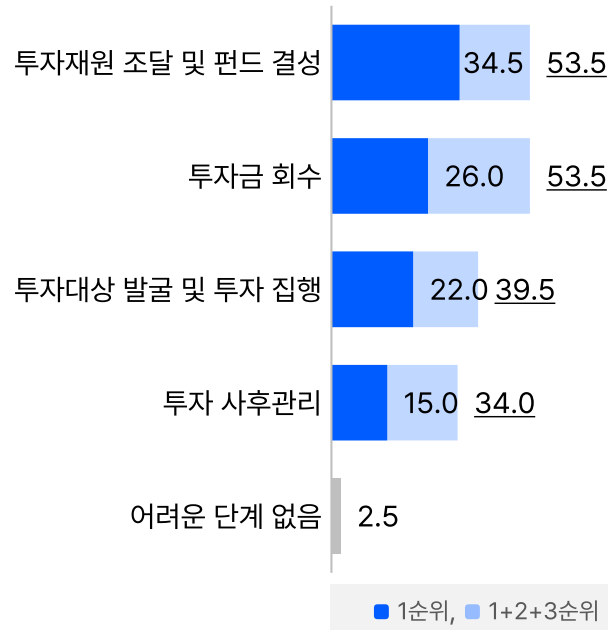
스타트업 투자 관련 어려움

펀드 운영 상 '투자자원 조달 및 펀드 결성'이, 투자 대상 발굴/집행 상 '투자대상 기업가치 평가', '투자대상 기업 발굴'이 가장 어려움

스타트업 투자 펀드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원 조달 및 펀드 결성' 및 '투자금 회수'가 가장 어려운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투자 대상 발굴 및 집행 상 어려움으로는 '투자대상 기업 가치 평가', '투자대상 기업 발굴'이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투자 펀드 운영 과정 상 어려움



투자 대상 발굴 및 집행 상 어려움



[Base: 투자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펀드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단계는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및 투자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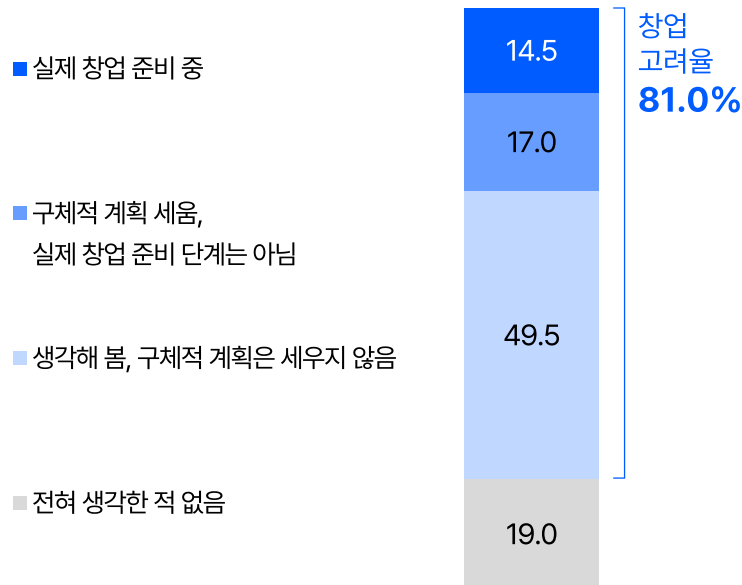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스타트업 투자자 10명 중 8명은 현재 창업 준비/계획 중이거나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음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투자자의 81.0%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업종으로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딥테크'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n=162)



[Base: 투자자 (n=200) / 창업 고려자 (n=162), Unit : %]

Q.

지난 1년 동안(2024년) 귀하께서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셨던/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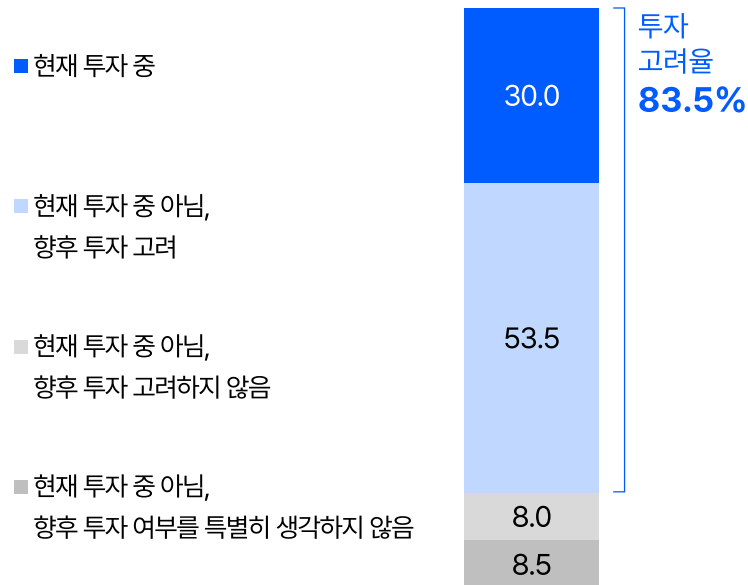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여부

83.5%가 해외 스타트업에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이며, 북미, 동남아 지역 투자/고려 비중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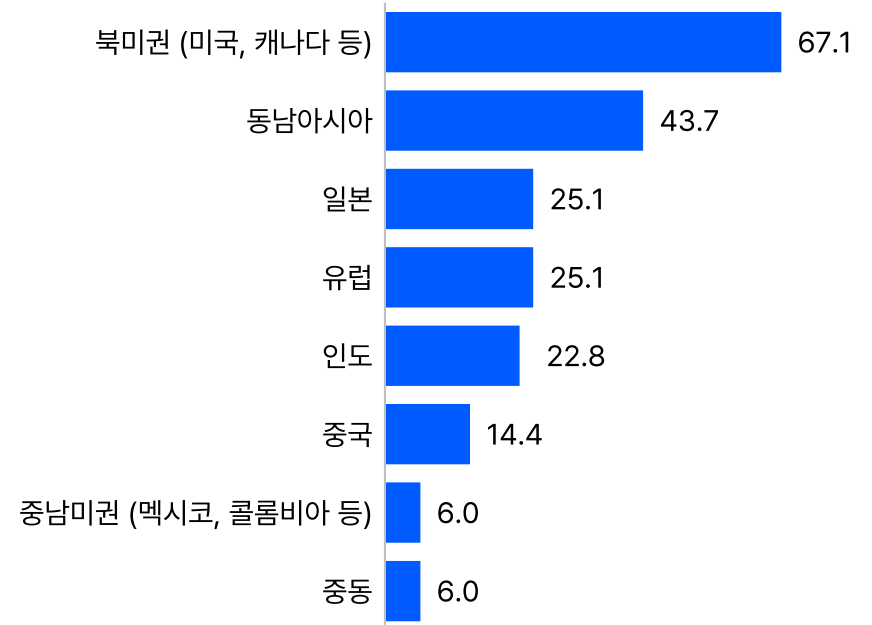
30.0%의 투자자가 현재 해외 스타트업 투자 중이며, 53.5%는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북미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인도 순이었습니다.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여부



투자/투자 고려 해외 지역



[Base: 투자자 (n=200) / 해외스타트업 투자/투자 고려자 (n=167), Unit : %]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3. 스타트업 재직자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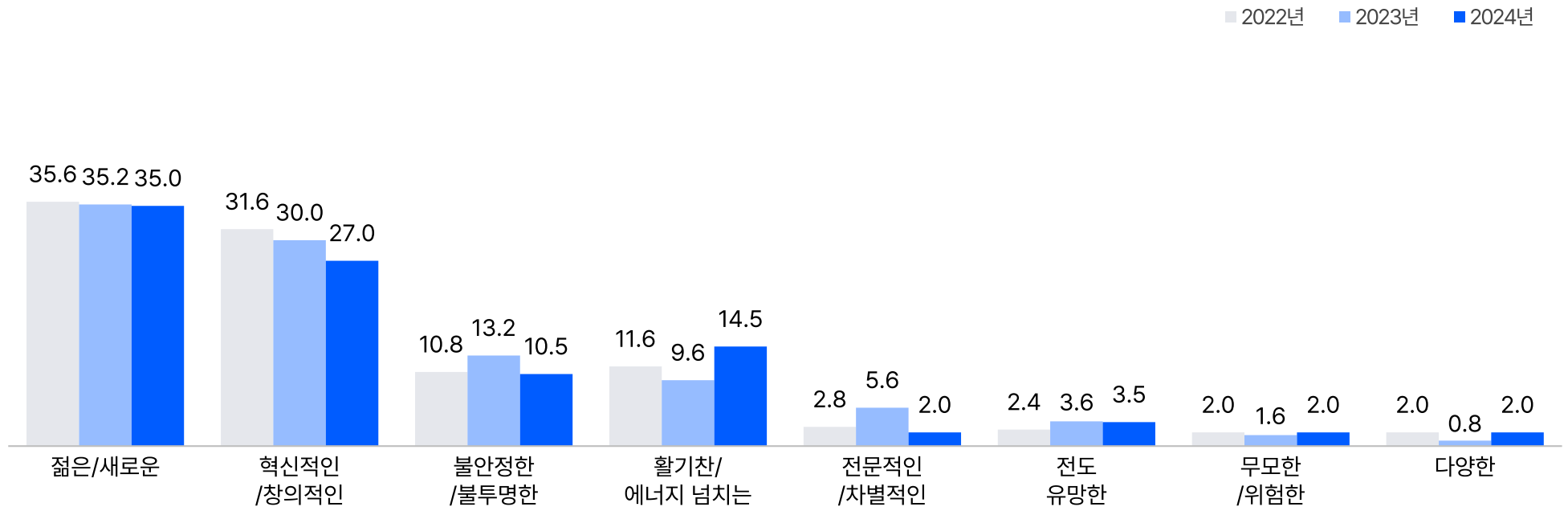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스타트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 '혁신적/창의적' 이미지 감소 추세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스타트업 이미지는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먼저 인식되고 있습니다.

'활기찬/에너지 넘치는' 이미지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는 202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납니다.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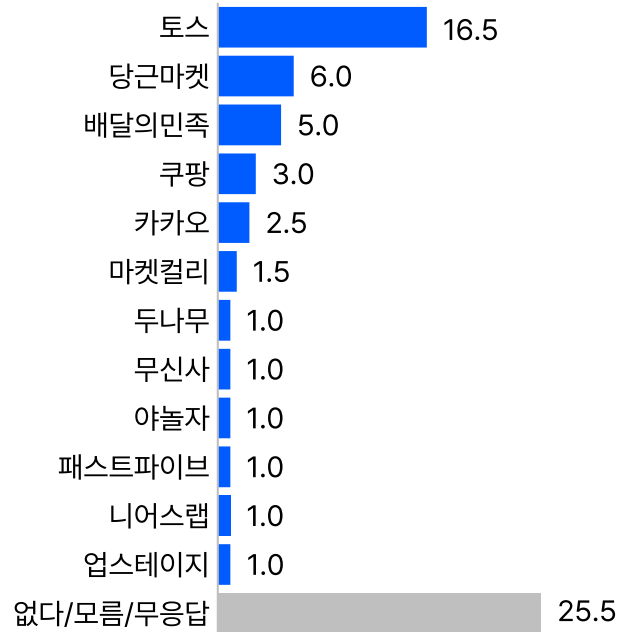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국내 스타트업 중, '토스'의 성장세가 빠르다고 생각하며, 업무 방식에 대한 관심도도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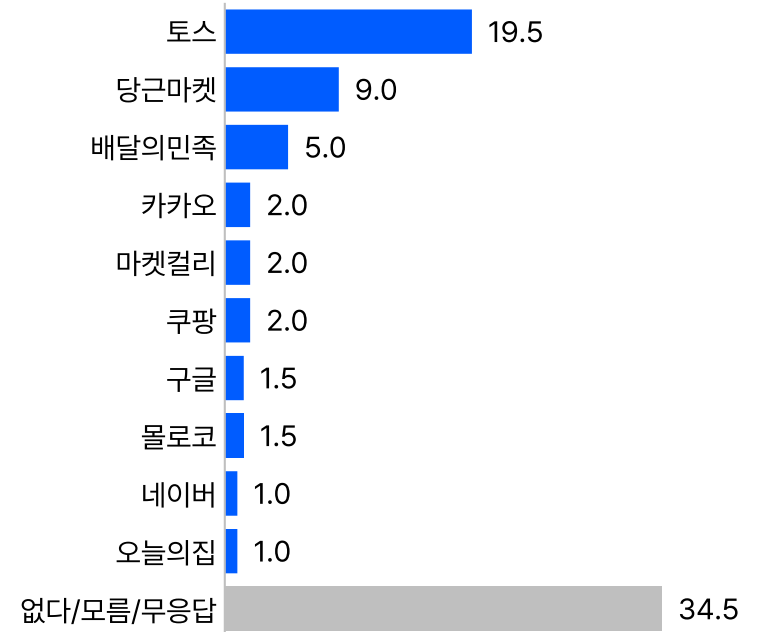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16.5%가 '토스'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꼽았으며, 이어 '당근마켓'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10명 중 2명 가량이 일하는 방식을 가장 알고 싶은 회사로 '토스'를 꼽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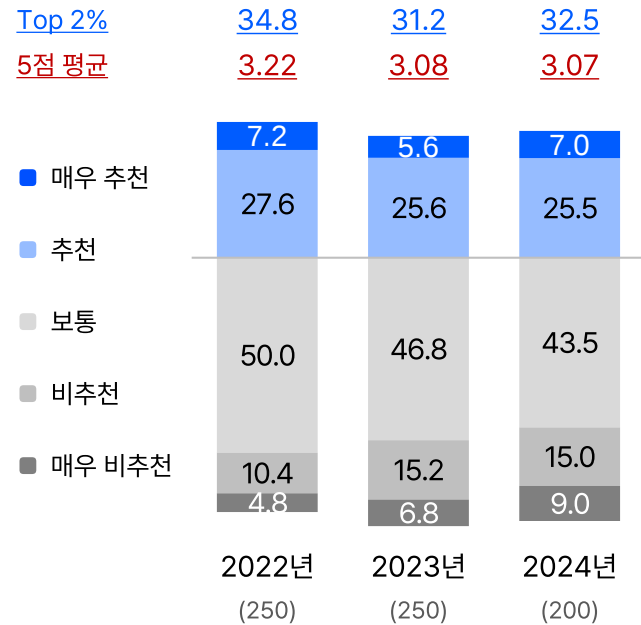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스타트업 재직자의 32.5%가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시리즈A 투자 단계를 가장 많이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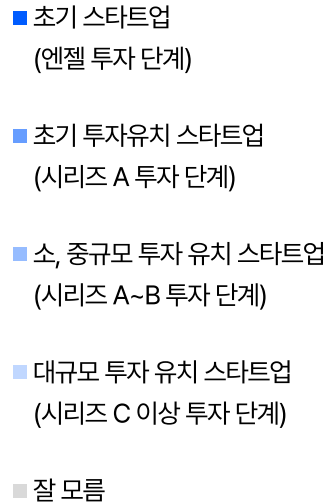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32.5%가 스타트업 근무를 주변 친구/지인에게 추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자의 40.0%가 스타트업 초기 투자유치 단계인 시리즈A 스타트업을 추천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추천 스타트업 단계 (n=65)



해당 단계 스타트업 추천 이유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단계)

"가장 리스크가 있는 단계이지만 잘 되었을 때 만족감과 보상이 큰 단계라서. 나의 실력검증은 덤"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 단계)

"스타트업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가장 진하게 묻어나는 시기라고 생각. 조직문화도 수립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함"

소, 중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B 투자 단계)

"시장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상태라 획기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라 기대됨"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

"어느정도 검증 받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근무 형태나 조건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임"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응답자 (n=65), Unit : %]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서의 근무 기회를 추천하시나요?

스타트업 근무 비추천 의향 이유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

반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 의향이 보통인 이유로는 주로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 '체계적이지 못함'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불안정성	43.0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
•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함	39.3		
• 불안정한 재정상태	3.0		"현재 IT산업군이나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상황으로 보임"
• 경영자 마인드가 대부분 별로임	3.0		
조직 문화/분위기	42.2		"불확실한 미래, 대기업만이 살아남기 쉬운 한국의 기업 구조 및 사회적 인식"
• 체계적이지 못함	24.4		
• 업무량이 많음	10.4		"체계가 다 잡혀 있지 않은 것이기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상적인 부분도 초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 힘들어서/많은 노력이 필요함	6.7		
급여/복지	14.1		"불안정하고 향후 5년내 회사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급여가 낮음	9.6		
• 복지가 좋지 않음	4.4		
기타	20.7		"아직 시작하는 기업이라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함"
• 장단점이 명확함/장단점이 있음	5.9		
•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서	5.2		"불안정하고, 대표의 성격이나 능력에 크게 좌지우지 된다"

[Base: 스타트업 근무 보통/비추천 응답자 (n=135),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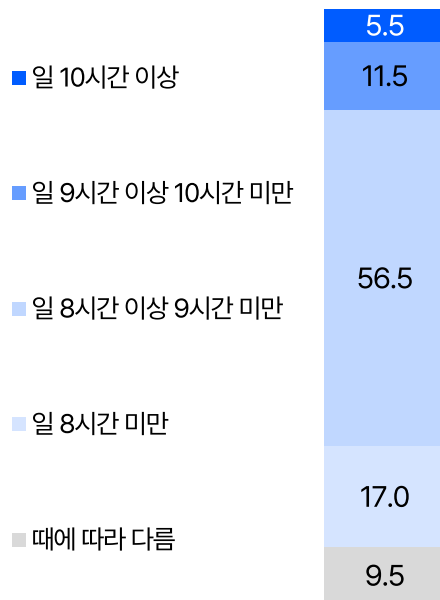
근무 환경

스타트업 재직자는 주로 일 8~9시간,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근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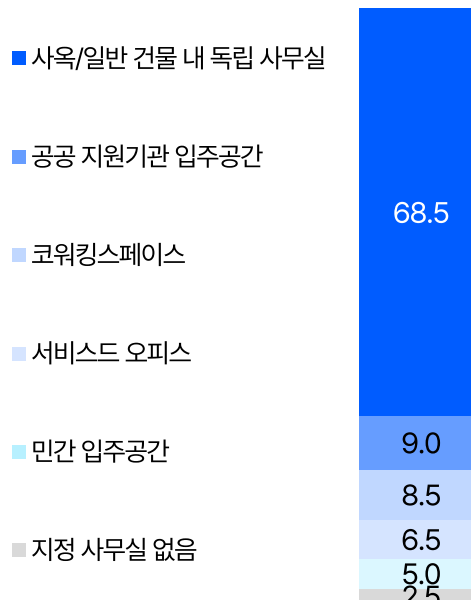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56.5%는 일 8시간~9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으며, 68.5%가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복지/근무 환경으로는 자율 복장, 식대/간식 지원, 탄력근무, 수평적 호칭 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전반적 근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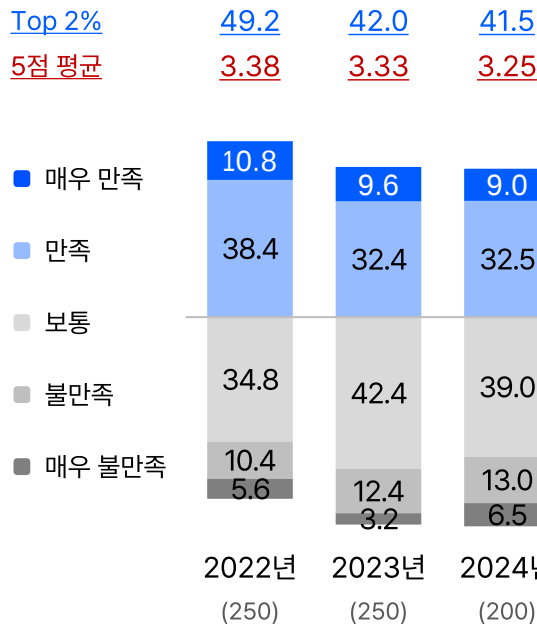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41.5%로 높지 않으며, '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가장 주요한 불만족 사유로 꼽힘

스타트업 재직자의 41.5%만이 전반적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며, 이는 2022년 대비 하락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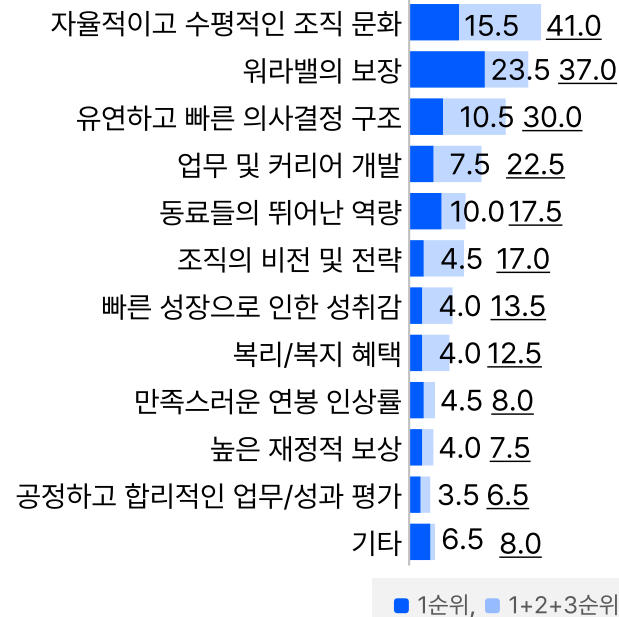
자율/수평적 조직 문화, 워라밸 보장,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에 주로 만족하나,

낮은 재정적 보상, 적은 복리/복지 혜택,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낮은 기업 인지도 측면은 주요 불만족 사유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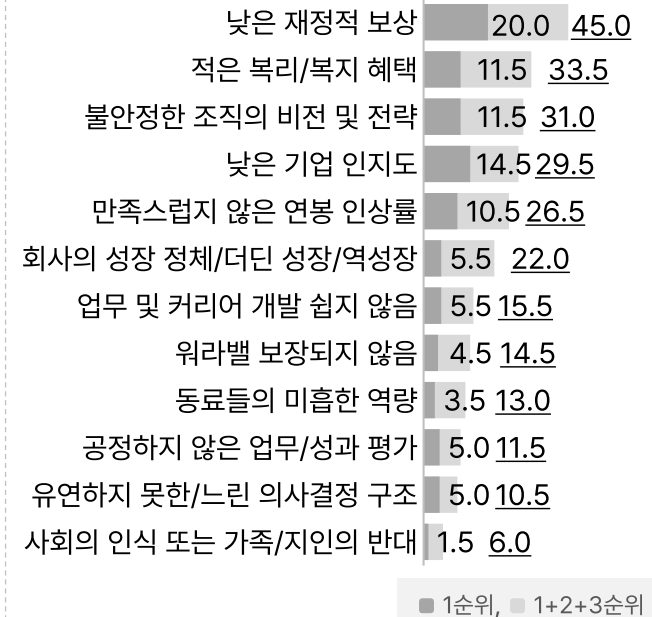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절삭

Q. 재직 중인 스타트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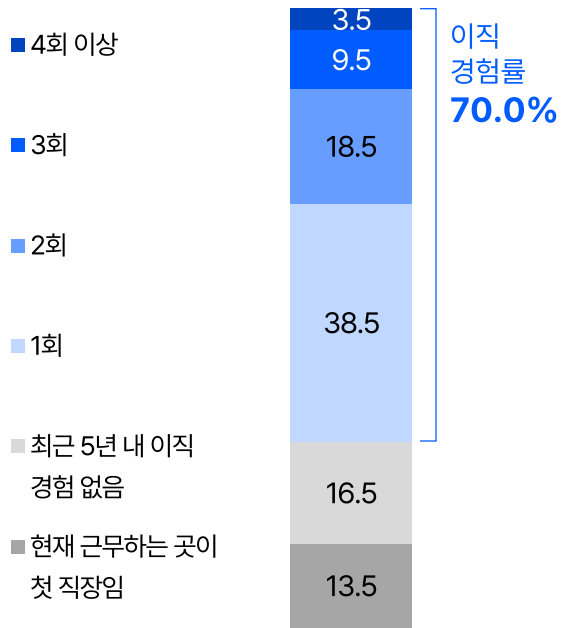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벤처/스타트업, 국내 중소기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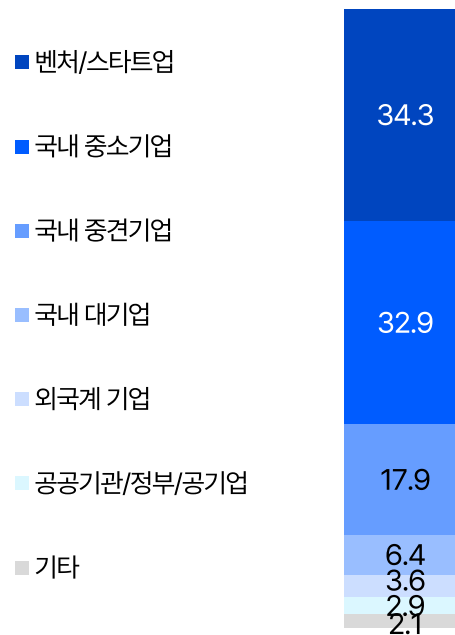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재직자 70.0%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벤처/스타트업 및 국내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이직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팀 내부 정보 탐색', '지원 기업의 금전적 보상 정보 탐색', '면접 준비', '입사 지원서 작성', '지원 기업 찾기'가 두루 응답되었습니다.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n=140)



스타트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n=14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140),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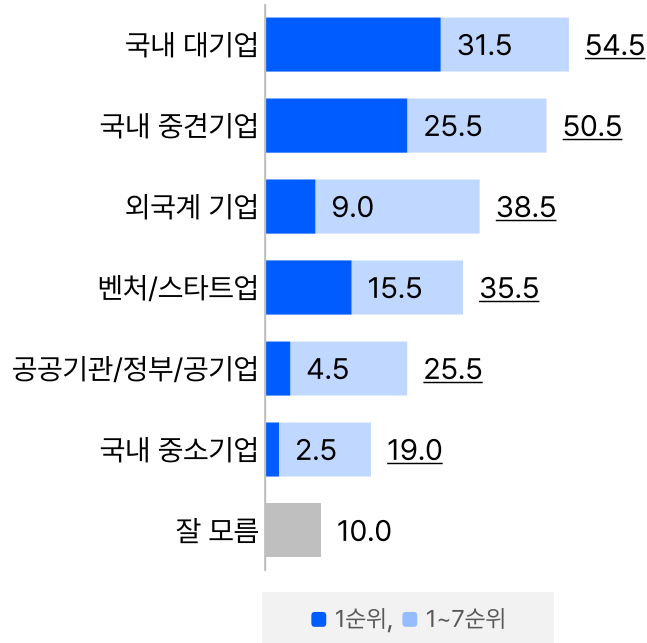
향후 이직 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복리/복지 혜택이 좋은 국내 대기업을 가장 선호함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로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대기업은 높은 재정적 보상, 복리/복지 혜택, 인지도 측면에서 선호되며,

벤처/스타트업 이직 희망자의 경우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업무 및 커리어 개발 가능,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조직 형태 별 이직 희망 이유

	전체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Base)	(180)	(63)	(51)	(31)	(18*)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45.6	61.9	47.1	22.6	38.9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45.6	61.9	45.1	22.6	38.9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	27.2	27.0	35.3	16.1	27.8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23.9	20.6	25.5	16.1	27.8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23.3	19.0	17.6	58.1	11.1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	21.1	14.3	25.5	38.7	22.2
동료들의 역량이 뛰어날 것 같아서	13.9	17.5	7.8	6.5	27.8
기업/기관 인지도가 높아서	13.9	20.6	9.8	3.2	16.7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빠를 것 같아서	12.8	3.2	5.9	38.7	16.7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11.7	4.8	7.8	22.6	27.8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성과 평가 기대	8.3	4.8	13.7	3.2	5.6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8.3	6.3	7.8	12.9	5.6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역할 수행	5.0	3.2	3.9	9.7	5.6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이직 희망 조직 응답자 (n=180), Unit :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 이직 희망 이유: 1+2+3순위 기준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향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해당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스타트업 이직 희망 형태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 시, 주로 시리즈C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단계 스타트업을 선호함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스타트업 재직자의 40.8%는 시리즈 C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희망합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 소프트웨어/솔루션, 딥테크 분야가 30% 이상 선택되었습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유 (n=69)

• 안정적이라서	10.1
• 재정적 안정/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가능	10.1
• 성장/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8.7
• 커리어 유지 및 개발	8.7
• 미래/앞으로 유망한 분야라서	7.2
• 관심 분야라서	7.2
• 전공 분야라서	7.2
• 혁신적인 기술 분야라서	5.8
•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곳이라서	5.8
•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5.8
• 다양한 경험/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8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71)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이직 희망 스타트업 단계 모름 응답자 제외) (n=69), Unit : %]

*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10% 미만 응답 절삭 / 이직 희망 이유 5%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투자 유치 단계의 벤처/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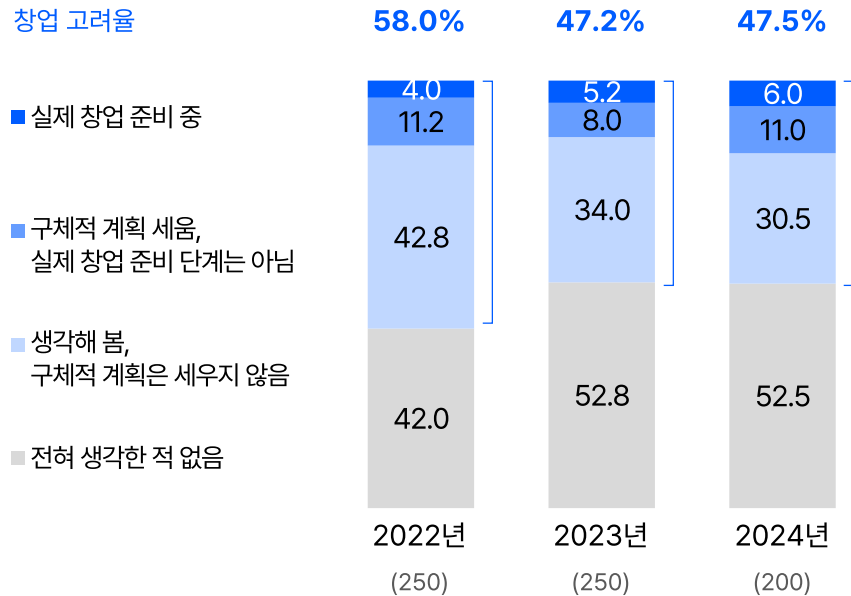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스타트업 재직자의 직접 창업 고려율은 47.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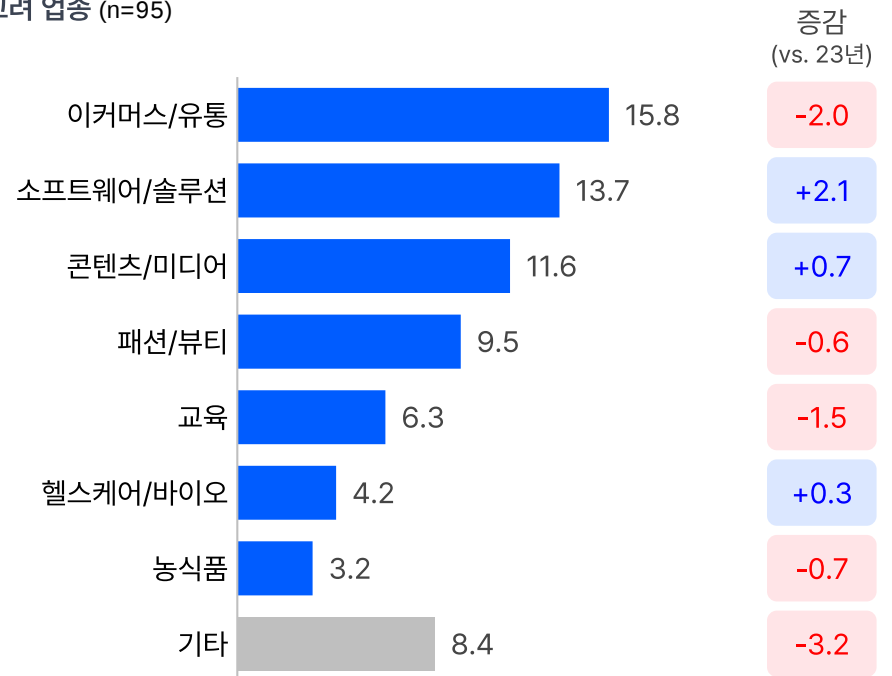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47.5%가 최근 1년 내 직접 창업을 생각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커머스/유통, 소프트웨어/솔루션, 콘텐츠/미디어, 패션/뷰티 분야 창업 고려율이 타 분야 대비 높은 편입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n=95)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창업 고려자 (n=95),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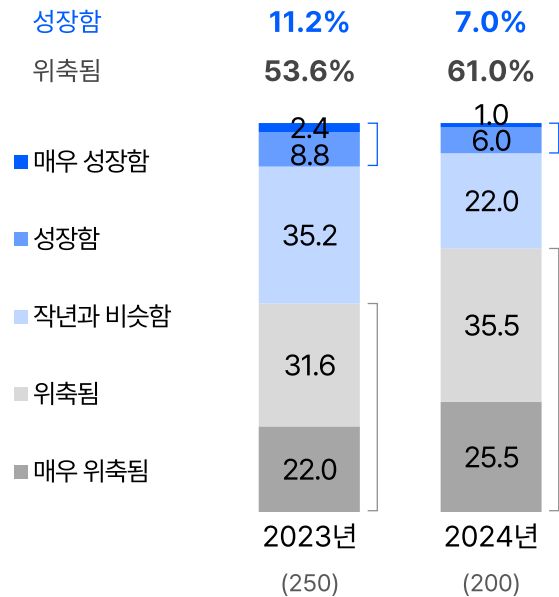
전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절반 가량이 지속 근무 및 창업 의향에 영향을 받음

스타트업 재직자의 61.0%가 전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2023년 대비 7.4%p 증가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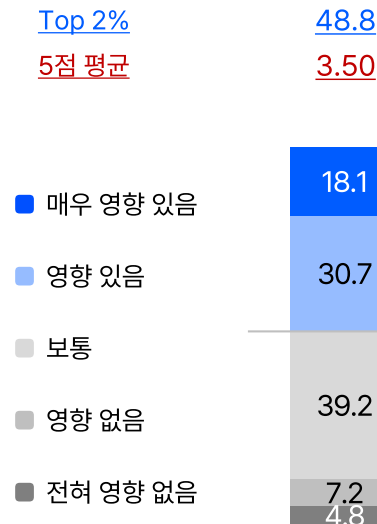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전년 대비 위축/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 48.8%가 지속 근무 의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 고려자의 56.1%가 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지속 근무 영향 정도



창업 의향 영향 정도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166) / 창업 고려자 중 투자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82), Unit : %/5점 평균]

Q. 2023년과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지속해서 근무하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이 귀하의 창업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4. 대기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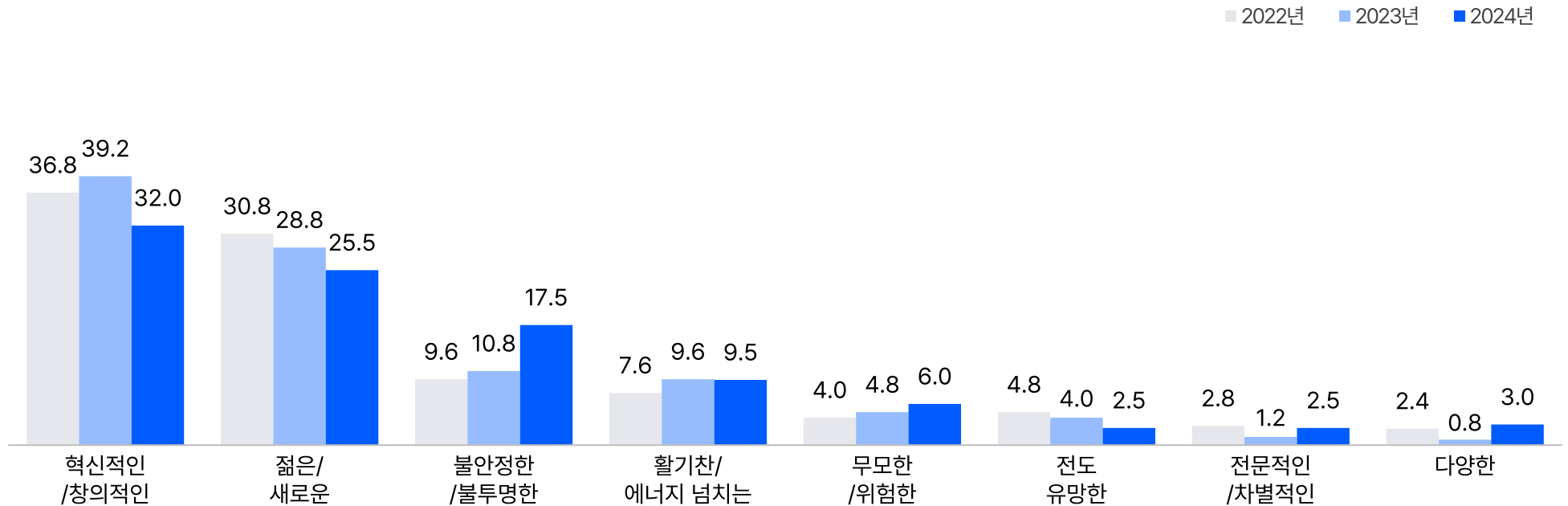
규모 총 200명

대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대기업 재직자에게 '혁신적인/창의적인', '젊은/새로운' 이미지 감소, '불안정/불투명한', '무모한/위험한' 인식 증가

대기업 직장인은 스타트업에 대해 주로 '혁신적인/창의적인', '젊은/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한 수치가 확인됩니다. 반면,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는 전년 대비 6.7%p 증가하였으며, '무모한/위험한' 인식이 증가 추세로 나타납니다.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국내 스타트업 인식

대기업 재직자는 빠른 성장/관심 스타트업으로 '토스'를 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 스타트업과 격차가 큰 편임

대기업 재직자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토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은 '토스', '배달의민족'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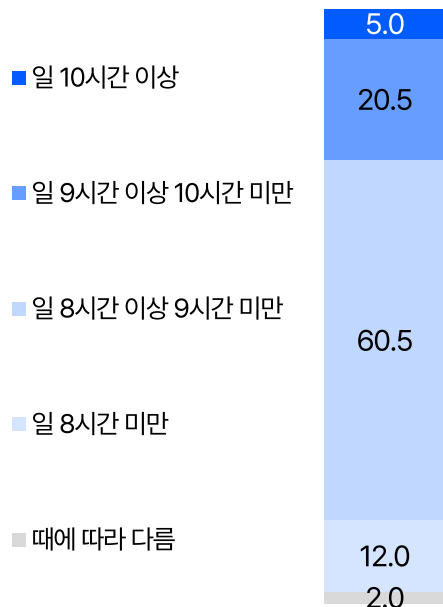
근무 환경

대기업 재직자는 주로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 8~9시간 근무함

대기업 재직자의 60.5%는 일 8시간~9시간 미만 근무하며, 대부분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지 비용 지원, 자율 복장, 식대/간식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탄력근무, 사내 식당 복지/근무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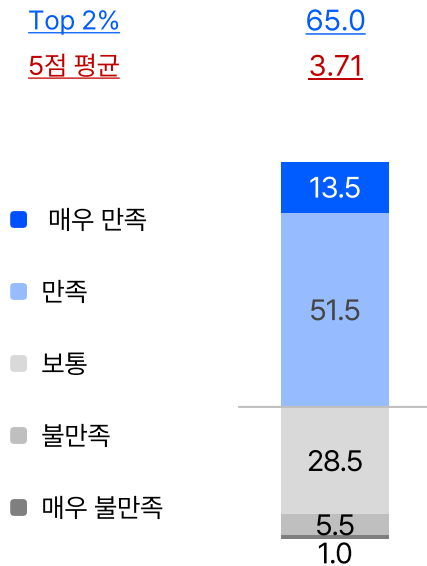
Q. 재직중인 대기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전반적 근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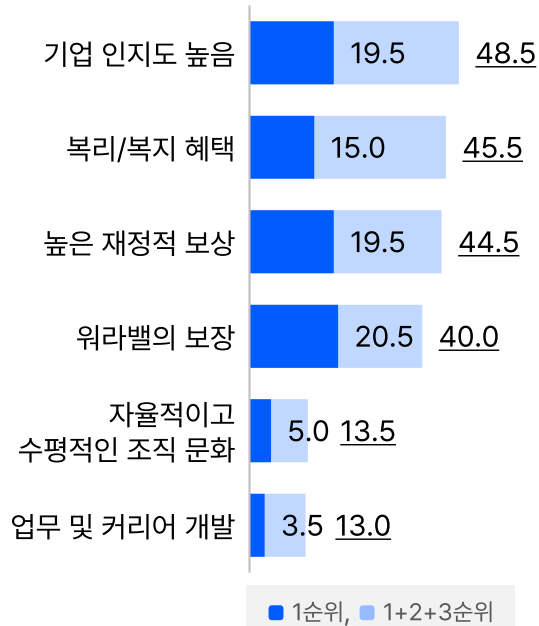
65%가 주로 '높은 기업 인지도', '복리/복지 혜택', '재정적 보상', '워라밸 보장' 측면에서 전반적 대기업 생활에 만족함

대기업 재직자의 65.0%가 대기업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높은 기업 인지도, 복리/복지 혜택, 높은 재정적 보상, 워라밸 보장 측면에서 만족합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 측면이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재직중인 대기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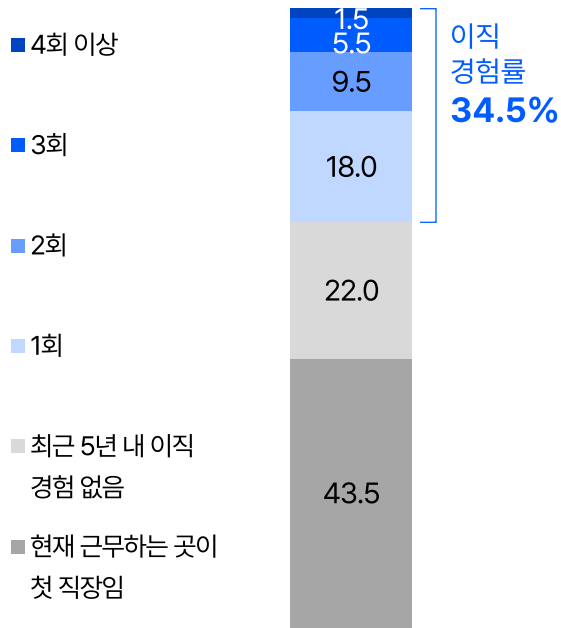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대기업 직원 34.5%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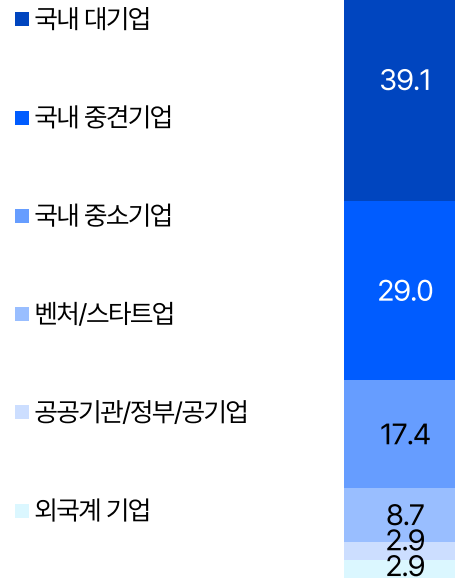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34.5%가 최근 5년 내 이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직하였습니다.

대기업 이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기업 조직문화/내부 정보 탐색', '면접 준비'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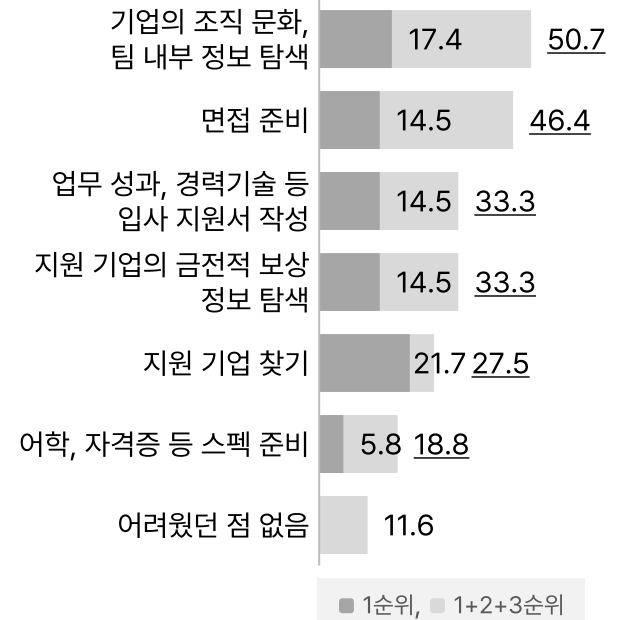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n=69)



대기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n=69)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69),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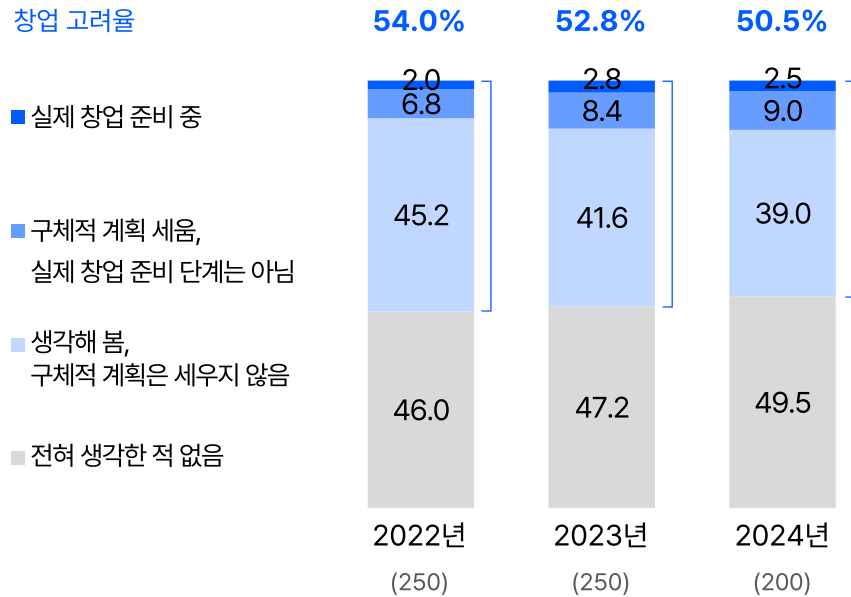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대기업 재직자의 창업 고려율은 2022년 이후 감소 추세,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이커머스/유통 분야 관심 높음

대기업 재직자 중 50.5%가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해 본 적 있으며,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확인됩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대기업 재직자 10명 중 2명 가량이 이커머스/유통 분야를 생각하며, 전년 대비 이커머스/유통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n=101)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창업 고려자 (n=101),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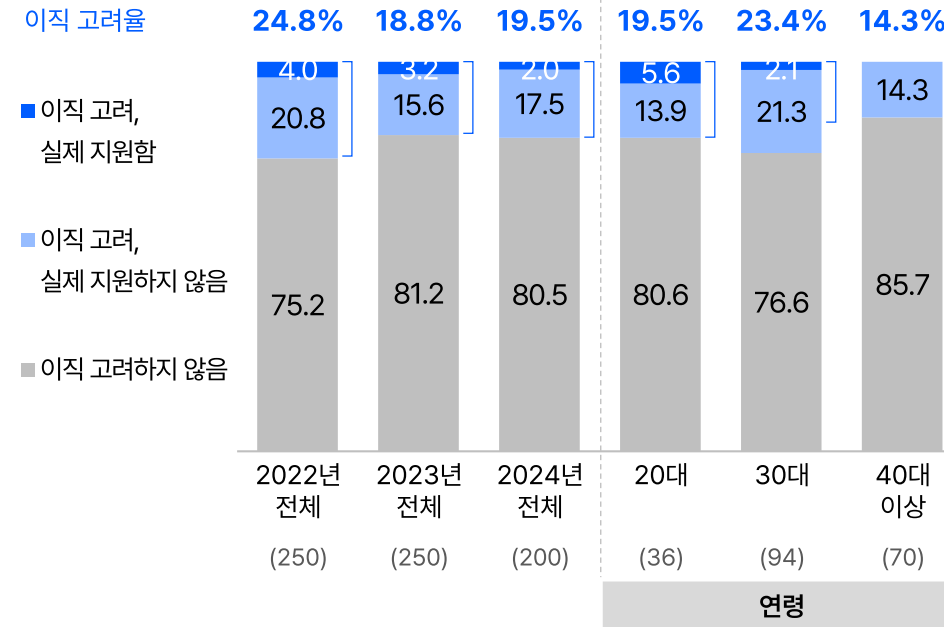
대기업 직장인의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19.5%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

대기업 직장인의 19.5%가 최근 1년 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주로 '높은 재정적 보상',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합니다.

전년 대비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 '뛰어난 동료들의 역량'을 기대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유연/빠른 의사 결정 구조' 응답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스타트업 이직 고려 이유 (n=39)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39), Unit : %]

* 이직 고려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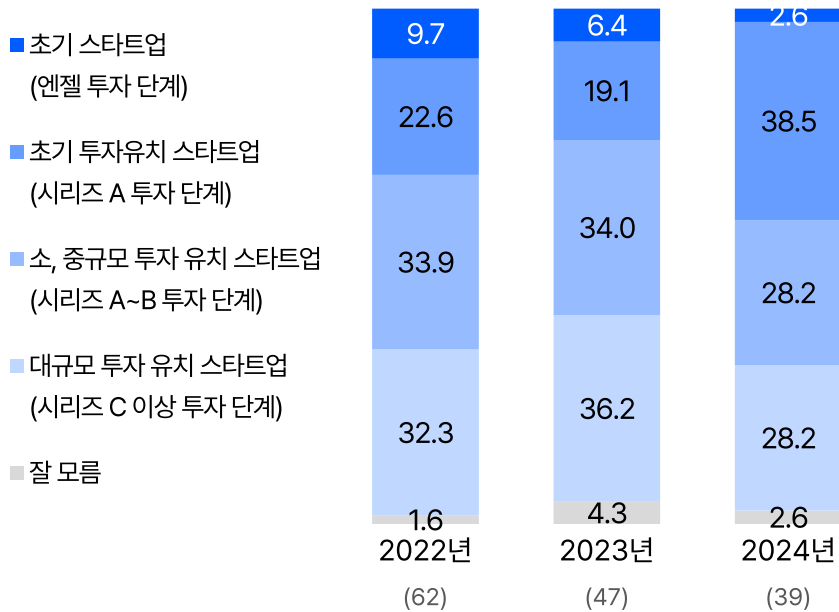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전년 대비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시리즈A) 및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이커머스/유통,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희망률 증가함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한 대기업 재직자의 38.5%는 시리즈 A의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2022, 2023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나타납니다.

주로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이커머스/유통', '모빌리티'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며, 이들 분야로의 이직 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39), Unit : %]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 이유

‘워라밸 비보장’,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측면이 스타트업 이직의 주요 hurdles로 작용함

대기업 재직자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워라밸 비보장’ 및 ‘낮은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Base: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자 (n=161), Unit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5. 취업준비생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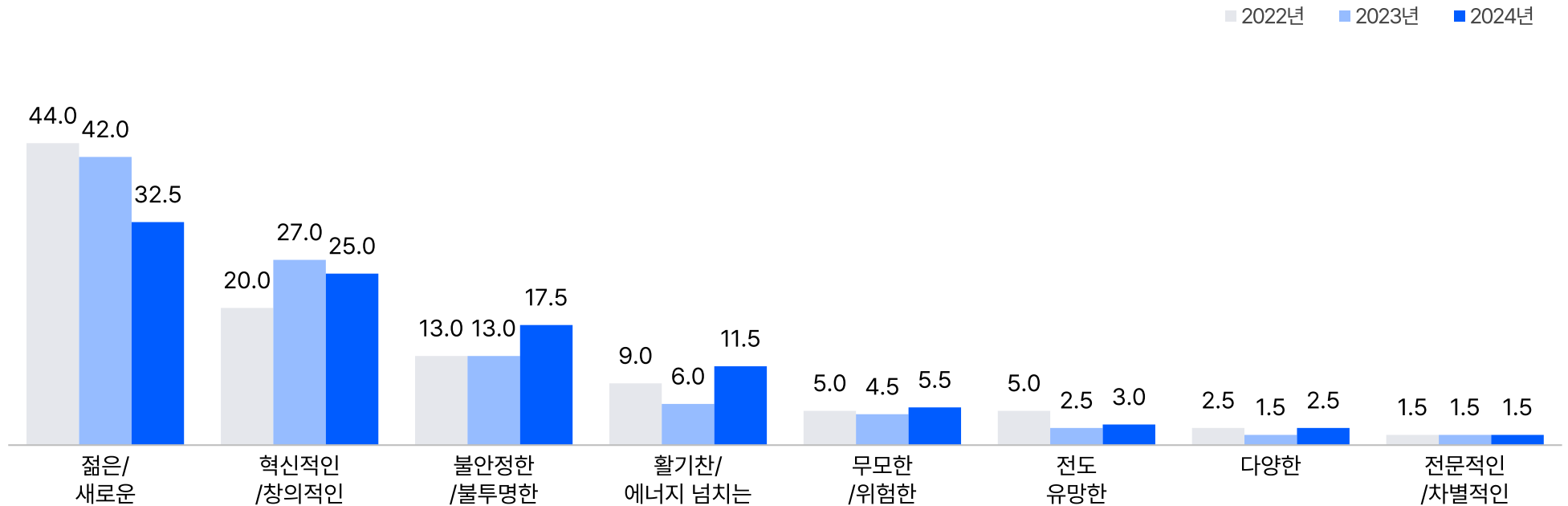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스타트업 이미지

취업준비생에게 '젊은/새로운', '혁신적/창의적인' 이미지 감소,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 증가

취업준비생은 스타트업에 대해 주로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를 주로 떠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젊은/새로운',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는 감소한 반면, '불안정한/불투명한', '활기찬/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는 증가하였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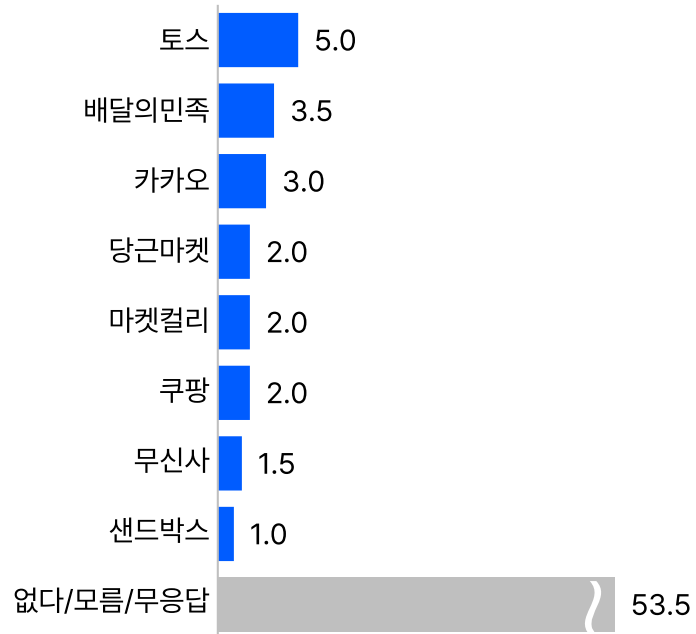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취업준비생에게 빠르게 성장한다고 인식되는 스타트업은 '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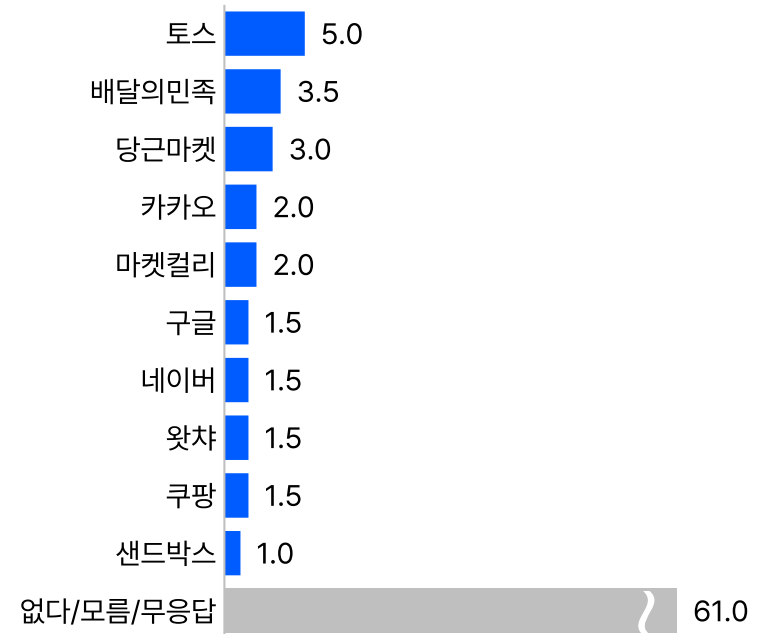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5.0%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토스'를 꼽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역시 '토스'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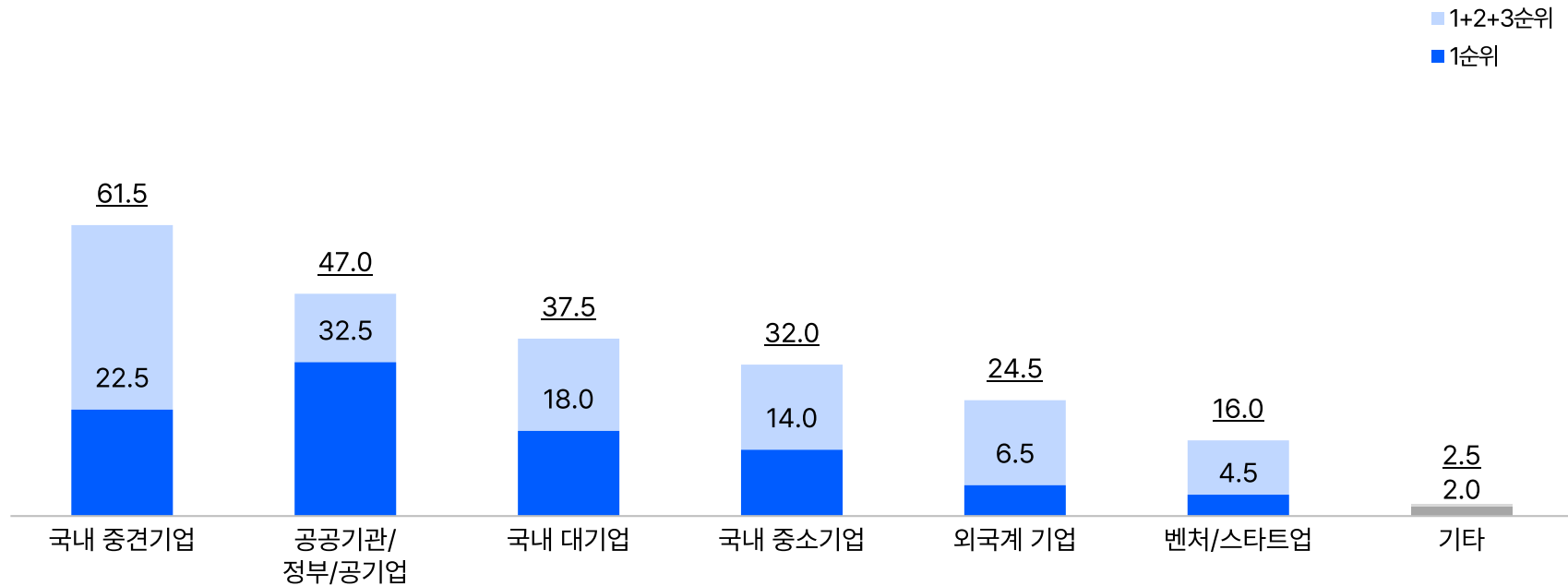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취업 희망 회사

취업준비생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조직은 국내 중견기업, 공공기관/정부/공기업, 대기업

취업준비생은 주로 국내 중견기업, 공공기관/정부/공기업,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며,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4.5%로 적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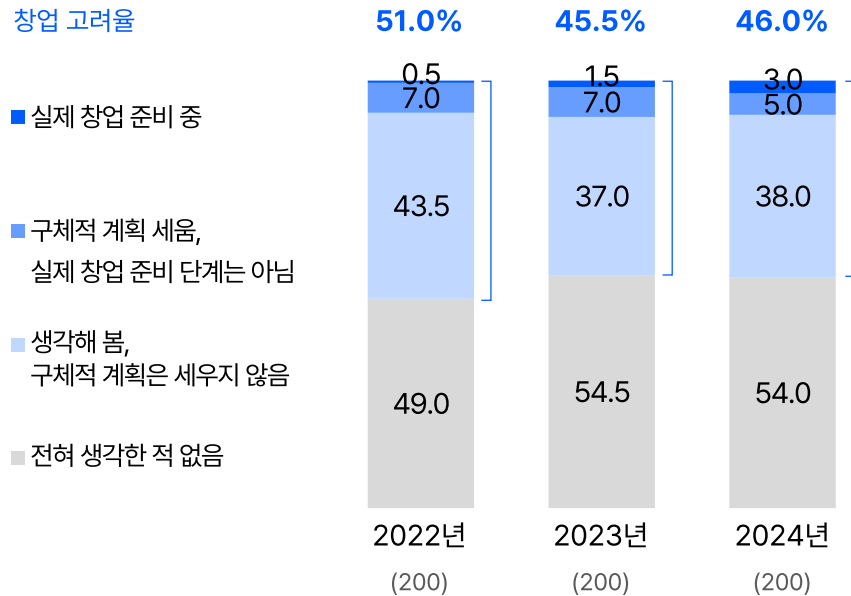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취업준비생의 46%가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농식품 및 이커머스/유통 분야 창업 관심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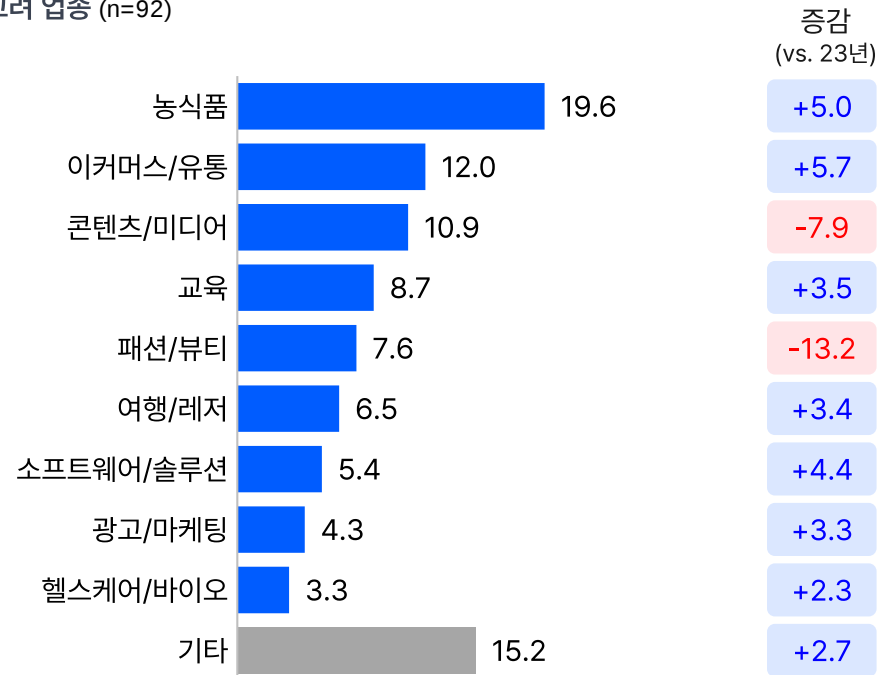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46.0%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창업 고려 분야로 농식품, 이커머스/유통,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주로 응답되었으며, 특히 농식품, 이커머스/유통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n=92)



[Base: 취업준비생 (n=200) / 창업 고려자 (n=92),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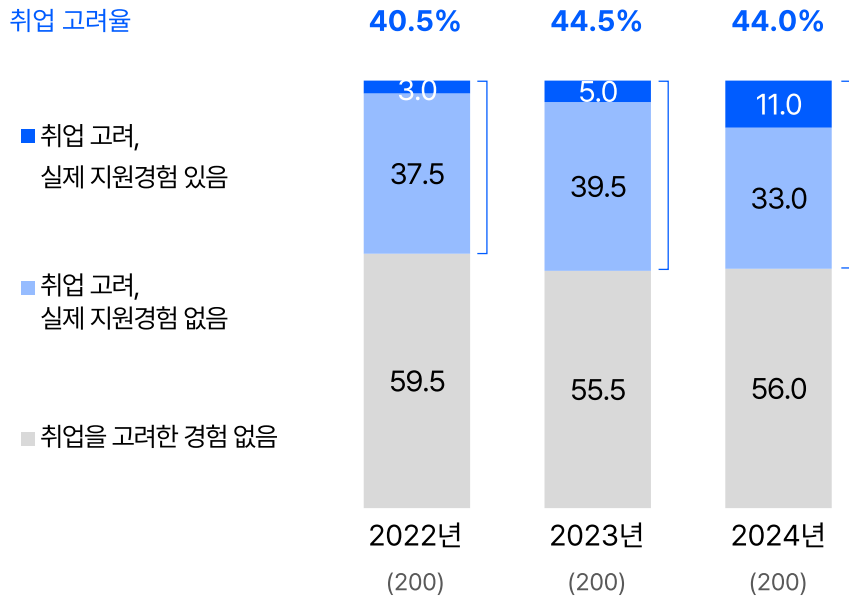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취업준비생 44%가 1년 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였으며, 11%는 실제 지원함 (실제 지원 경험 전년 대비 6%p 증가)

취업준비생의 44.0%가 최근 1년 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실제 지원 경험' 비중이 6%p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위라벨 보장',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측면이 주요 매력 요소이며, 전년 대비 '복리/복지 혜택', '조직 문화 선호' 응답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스타트업 취업 고려 이유 (n=88)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8), Unit : %]

Q.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셨거나 실제로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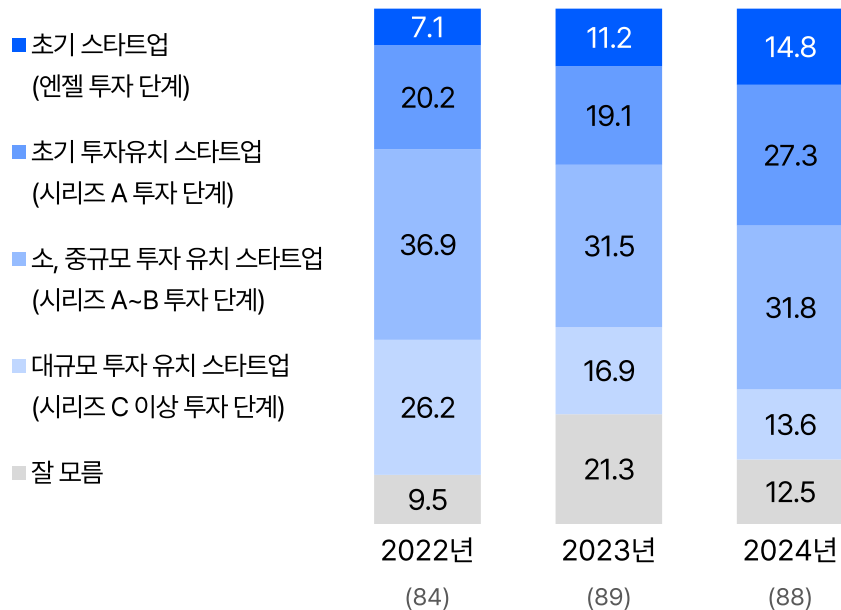
시리즈 A 이전 초기 스타트업 취업 희망 비중 증가세, 콘텐츠/미디어 및 여행/레저 분야 취업 선호함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1.8%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기업을, 27.3%는 시리즈 A 투자 단계의 기업을 선호합니다.

전년 대비 시리즈 A 이전의 초기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분야로는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여행/레저 분야가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 (n=88)



[Base: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8), Unit : %]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취업 비교려 이유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성장 기대 어려움 측면은 스타트업 취업의 주요한 hurdles로 나타남

취업준비생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예상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회사 성장 기대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습니다.



[Base: 스타트업 취업 비교려자 (n=112), Unit :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투자자
3. 스타트업 재직자
4. 대기업 재직자
5. 취업준비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6. [특별 설문] AI 관련 인식

규모 총 1,050명

대상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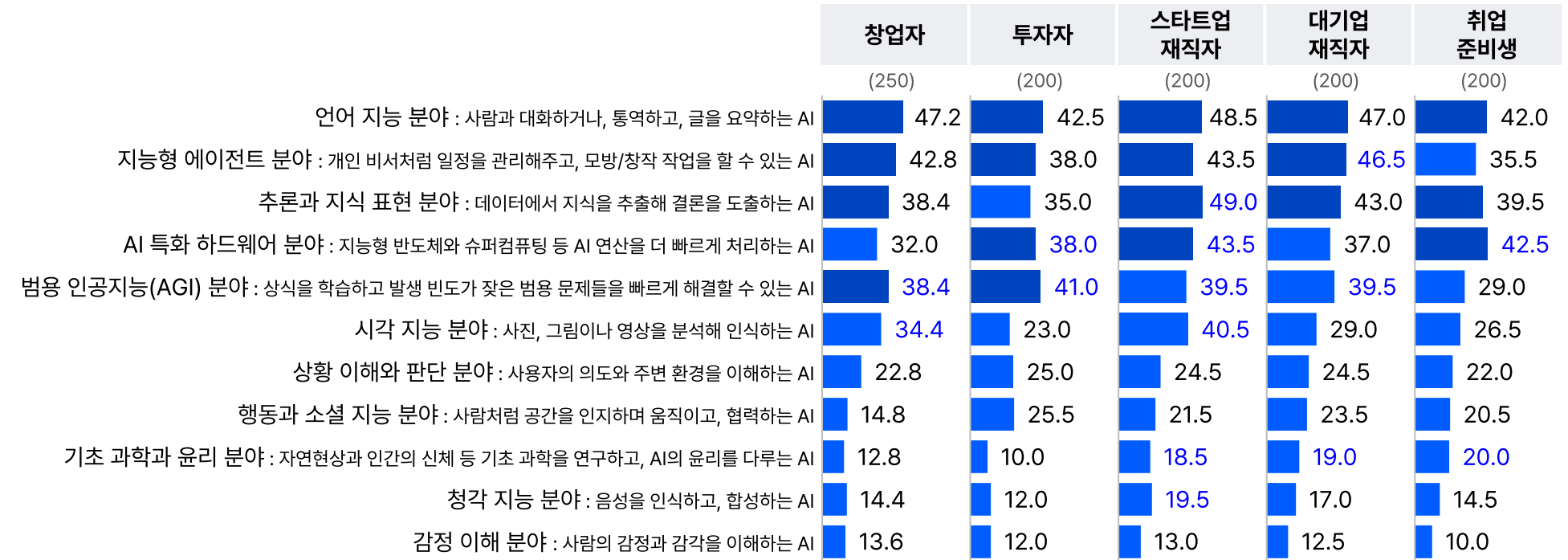
유망 AI 분야 인식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모두 40% 이상이 유망한 AI 분야로 '언어 지능 분야'를 꼽음

AI 활용 분야 중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언어 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추론/지식 표현, AI 특화 하드웨어, AGI, 시각 지능 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그룹에서 40% 이상이 언어 지능 분야를 유망한 AI 분야로 선택하였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분야(AGI)의 경우, 취업 준비생을 제외한 모든 그룹 특히 투자자 그룹에서 더욱 유망한 분야로 선택되었습니다.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 ■ 상위 3순위 응답

Q. AI를 활용한 분야 및 기술 중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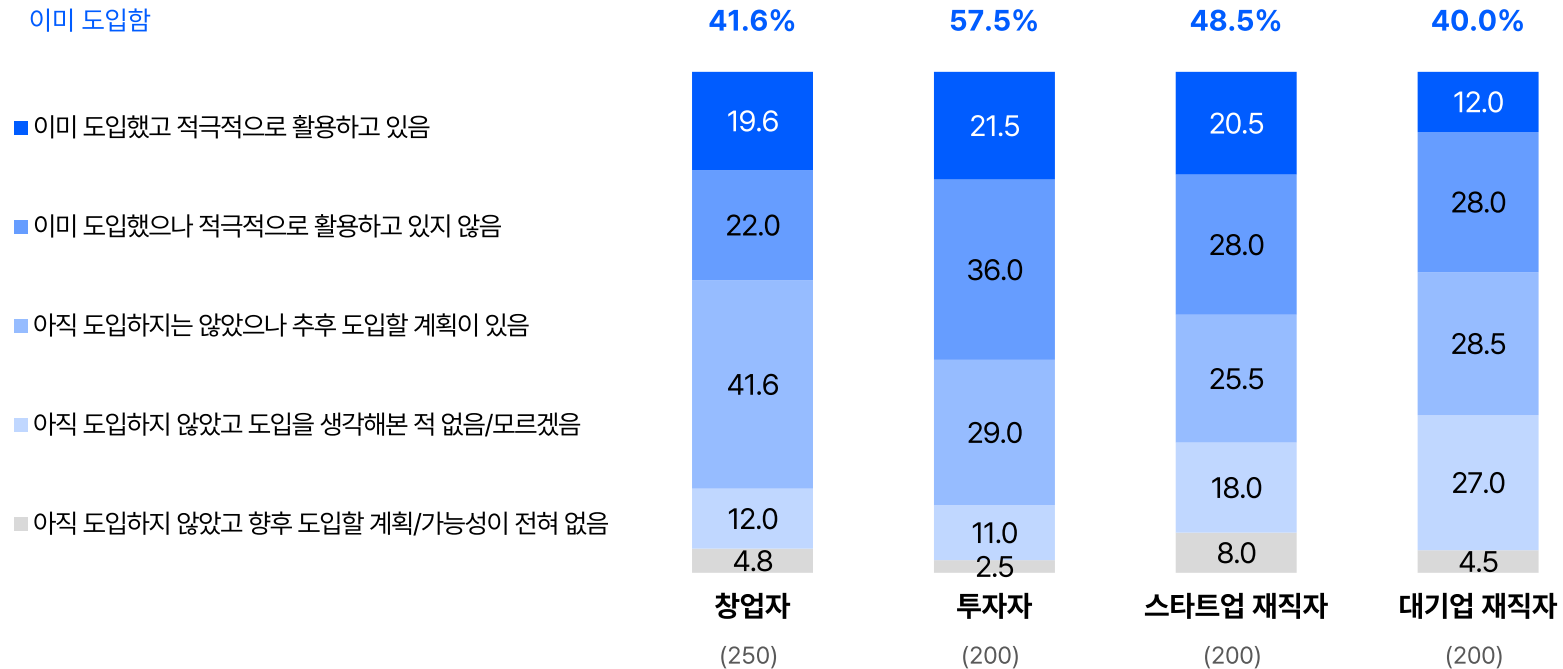
직무 AI 도입 현황

40% 이상이 회사/업무에 AI를 도입하였으나, 적극 활용 비중은 10~20% 가량으로 높지 않음

조사에 참여한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의 40% 이상이 현재 본인의 회사 및 업무에 AI를 도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 그룹의 경우 57.5%가 AI를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그룹별로 10~20%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도입 비율 대비 절반 이하)



[Base: 창업자 (n=250) /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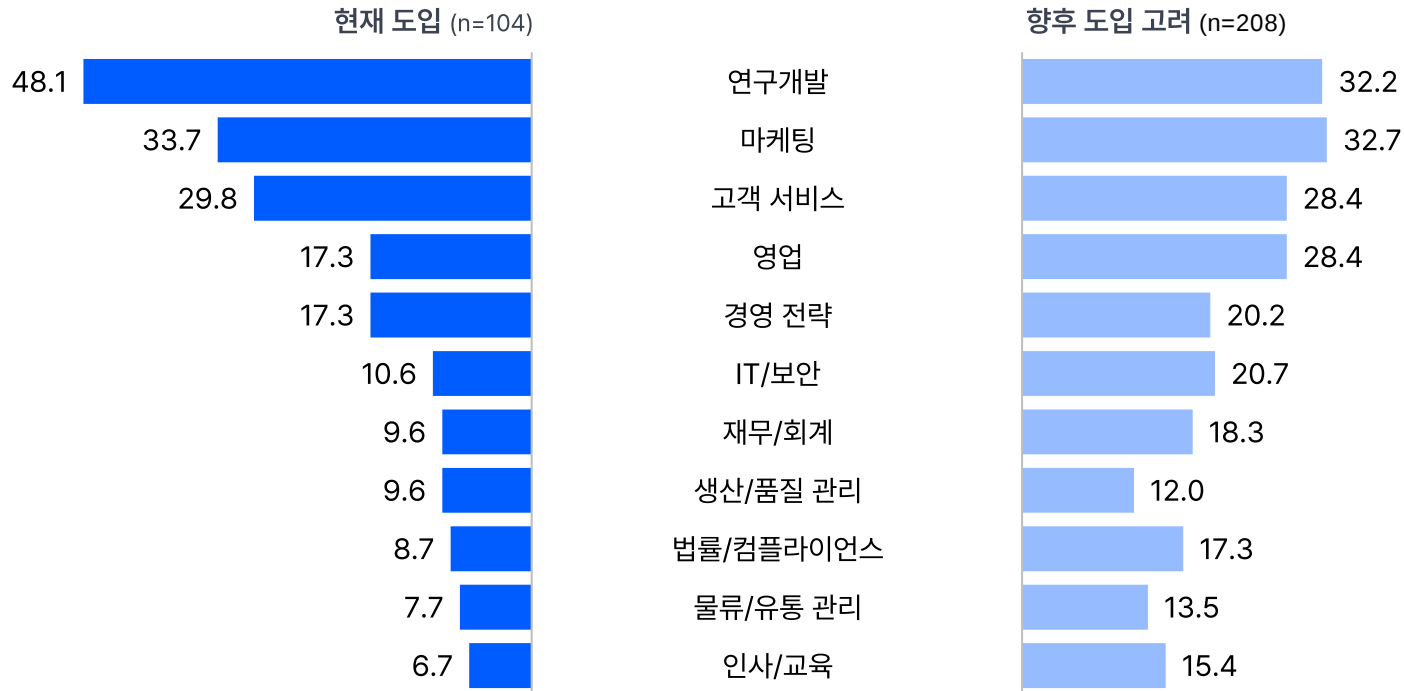
Q. 현재 귀사/귀하의 AI 직무 도입 현황은 어떤가요?

[창업자] 현재 및 향후 AI 도입 분야/시스템

주로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분야에 AI를 도입함

회사에 AI를 도입한 창업자의 48.1%가 연구개발 관련해 도입하였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마케팅(33.7%), 고객 서비스(2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야 역시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및 영업이 타 분야 대비 높게 나타납니다.



[Base: 업무에 AI를 도입한 창업자 (n=104) / 업무에 AI 도입/도입 고려 창업자 (n=208), Unit : %]

Q. 어떤 분야/시스템에 도입하셨나요?
향후 추가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새롭게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AI 분야/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창업자] AI 도입 관련 기대/우려 사항

사내 AI 도입 시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측면은 긍정적이나, 보안문제 및 정확도 부족 측면에 대한 우려 존재함

창업자들은 사내 AI 도입 시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측면을 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주로 보안문제, 정확도 부족 등이 응답되었습니다.

사내 AI 도입 기대 사항

업무적 측면	59.5
• 업무효율성 증대	16.5
• 생산성 향상	9.1
• 업무 자동화	7.4
• 업무시간 축소	7.4
• 데이터 수집/분석에 용이함	5.8
• 단순 반복업무에 활용	4.1
• 자료 검색 시 도움을 받음	3.3
재무/금융	19.8
• 비용 절감	9.9
• 인건비 절감	7.4
고용/노동	7.4
• 인력 감축 가능	5.0

사내 AI 도입 우려 사항

운영적 측면	27.3
• 보안문제	17.4
• 사내 정보 유출 우려	6.6
기술적 측면	22.3
• 정확도 부족	9.1
• 아직 오류가 많음	6.6
• 검증되지 않아서	2.5
고용/노동	19.0
• 일자리 상실 확대	7.4
• 업무 퀄리티 하락	2.5
재무/금융	2.5
• 운영비용이 높을 것 같음	2.5

[Base: 업무에 AI 도입/도입 고려 창업자 (n=121), Unit : %]
* 기대 사항 3% 미만 응답 절삭 / 도입 우려 사항 2% 미만 응답 절삭

Q. 사내 AI 도입에 있어서 '기대되는/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자/재직자] AI 도입 방식 및 직무 도입 관련 인식

10명 중 6명 가량이 AI 직무 도입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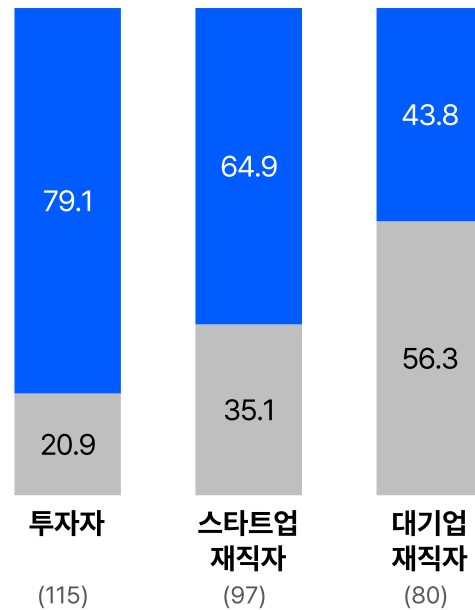
투자자의 79.1%, 스타트업 재직자의 64.9%는 AI 도입을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개인적으로 직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재직자는 회사의 의사 결정 하에 조직적으로 직무에 활용중인 비중이 56.3%로 개인 주도/활용 비중보다 높습니다.

투자자/재직자 10명 중 6명 가량이 AI 직무 도입에 긍정적이며, 투자자(63.5%)>스타트업 재직자(61.0%)>대기업 재직자(58.5%) 순으로 긍정 비율이 높습니다.

[투자자/재직자] AI 도입 방식 및 현황

- AI 도입은 개인적인 결정 하에 이뤄졌고
개인적으로 직무에 활용 중임
- AI 도입은 회사의 의사 결정 하에
이뤄졌고 조직적으로 직무에 활용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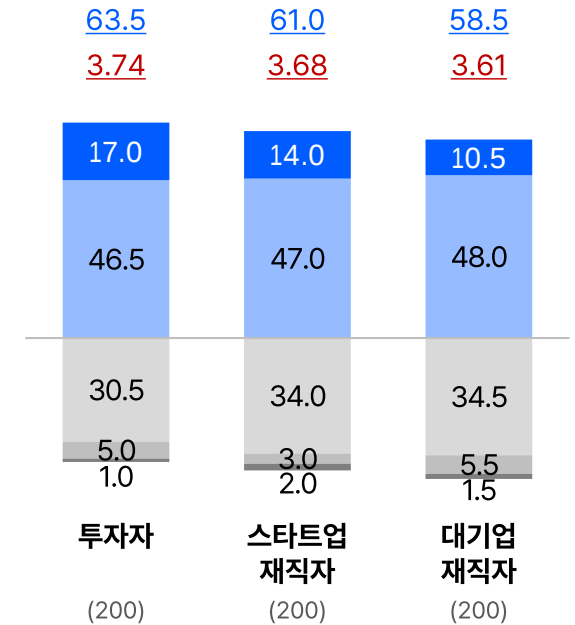


[투자자/재직자] AI 직무 도입 관련 인식

Top 2%

5점 평균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Base: AI 활용 투자자 및 재직자 / 전체 응답자, Unit : %]

Q. AI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직무에 AI가 도입되는/도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재직자] AI 직무 도입 인식 이유

AI 직무 도입 시 업무 효율성 증대, 업무 시간 축소는 긍정적이나, 현 재직자의 일자리 상실 확대 우려 존재함

직무 AI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로 '업무 효율성 증대', '업무시간 축소' 등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반면, 도입에 부정적인 경우 투자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일자리 상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AI 직무 도입 긍정 이유

	투자자 (127)	스타트업 재직자 (122)	대기업 재직자 (117)
업무효율성 증대	33.1	20.5	27.4
업무 시간 축소	18.9	14.8	12.8
편리한 업무수행	2.4	9.8	10.3
업무에 유용함	4.7	11.5	6.0
생산성 향상	11.8	7.4	2.6
단순 반복 업무에 활용	3.9	4.1	5.1
자료 검색 시 도움을 받음	6.3	3.3	3.4
업무 자동화	2.4	3.3	3.4

AI 직무 도입 부정 이유

	투자자 (73)	스타트업 재직자 (78)	대기업 재직자 (83)
일자리 상실 확대	4.1	19.2	12.0
아직은 시기상조임	15.1	5.1	8.4
유용성이 낮음	6.8	5.1	4.8
정확도 부족	6.8	5.1	1.2
기술 발전이 더딤	6.8	2.6	3.6
신뢰가 가지 않음	4.1	6.4	2.4
업무가 늘어날 것 같음	1.4	5.1	3.6
보안문제	4.1	1.3	3.6

[Base: AI 도입 긍정 및 부정 응답 투자자 및 재직자, Unit : %]
* 전체 기준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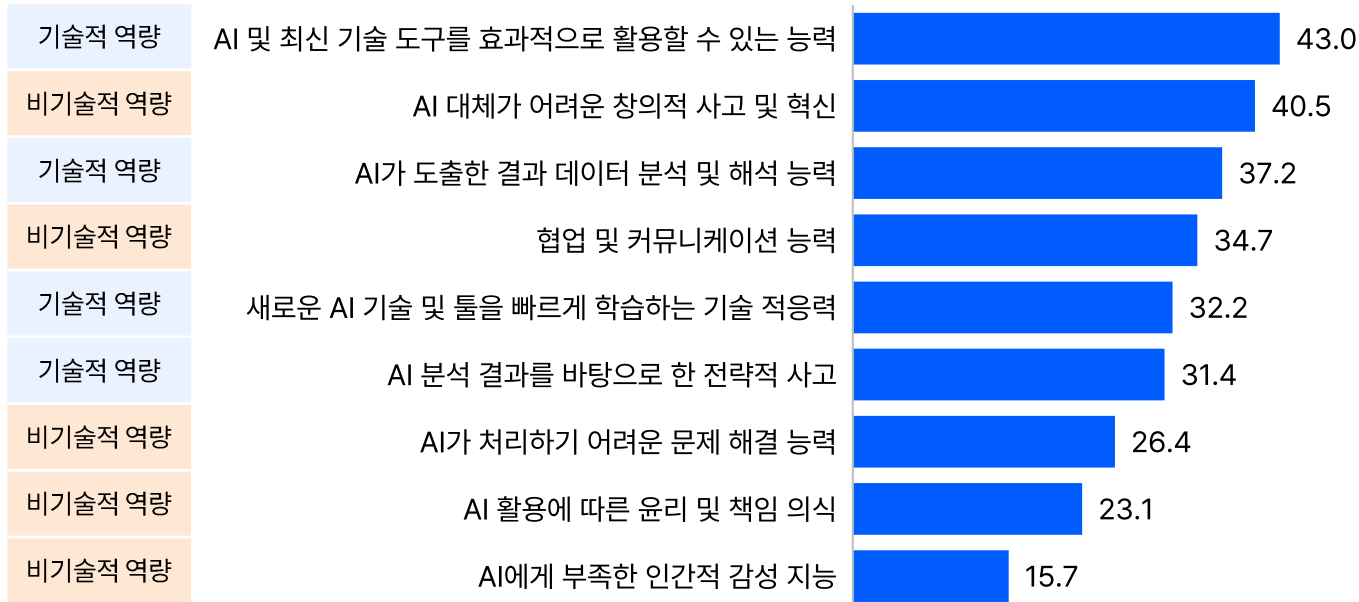
Q. 직무에 AI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업자] AI 도입으로 인한 직원 채용 고려 역량

창업자들은 AI 도입으로 직원 채용 시 '기술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혁신', '데이터 분석/해석 능력'을 중요하게 요구/고려할 것

창업자들은 업무에 AI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직원 채용에 있어 'AI 및 최신 기술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I 대체가 어려운 창의적 사고 및 혁신', 'AI가 도출한 결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 등을 중요하게 요구/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20% 이상 고르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기술/비기술 역량 구분 시 '기술적 역량' 요소가 고려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Base: 업무에 AI 도입/도입 고려 창업자 (n=121),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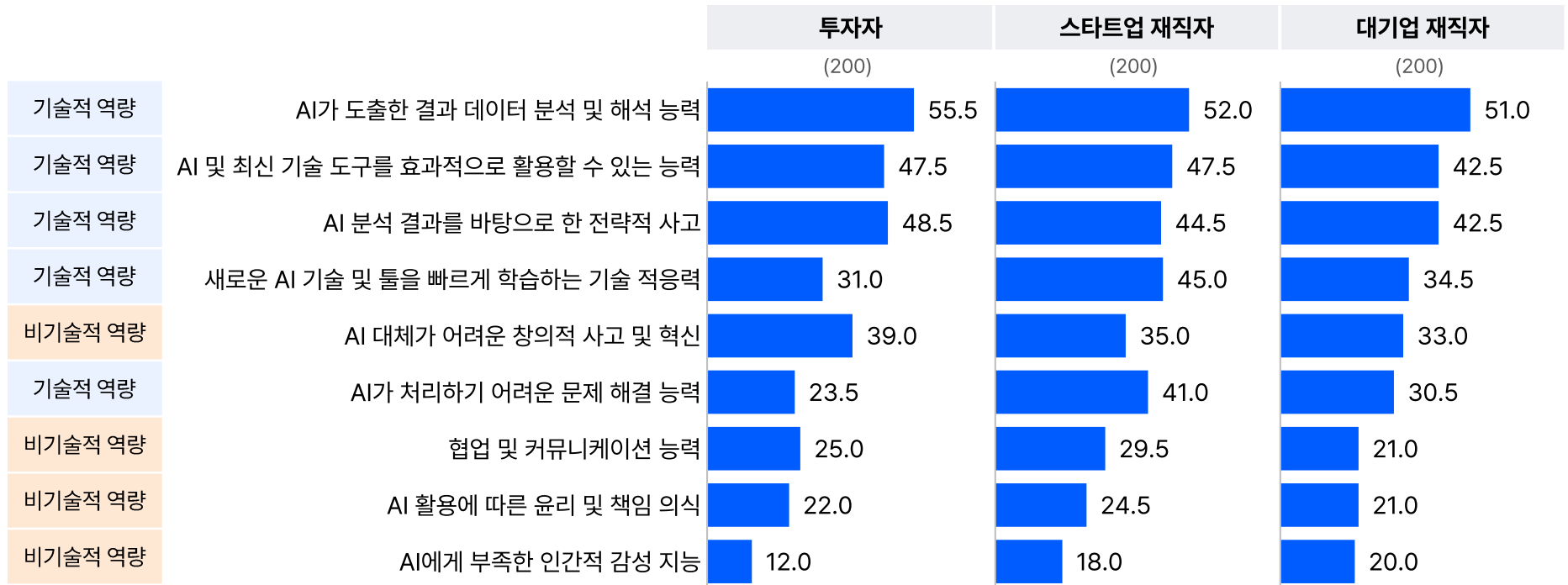
Q. 업무에 AI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직원 채용에 있어서 새롭게 혹은 더 강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투자자/재직자]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 요구 역량 인식

투자자 및 재직자는 AI 도입으로 '데이터 분석/해석 능력'이 보다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인식함

투자자 및 스타트업/대기업 재직자 모두 과반 이상이 AI 도입 이후 수행 직무에서 'AI가 도출한 결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이 보다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AI 및 최신 기술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사고' 역시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경우 '새로운 AI 기술/툴을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 적응력'과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될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Base: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Q. AI 도입 이후 귀하께서 수행하고 계신 직무에서 새롭게 혹은 더 강하게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opensurvey

**‘데이터의 새로운 미래’,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

오픈서베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까지 오픈서베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입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활동 등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tart-up Trend Report 2024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본 리포트는 모바일 리서치 플랫폼사인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 스타트업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공동 발행합니다.

리포트 담당 업무 범위

오픈서베이: 프로젝트 설계,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설계, 최종 보고서 감수

리멤버: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Pool 제공